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2006中國流行語》

韓國語 翻譯 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中學科

鄭恩淑

2007年 8月

《2006中國流行語》

(韓國語 翻譯 論文)

指導教授 宋炫宣

鄭恩淑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8月

鄭恩淑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 洪 善 ㊟

委 員 宋 炫 宣 ㊟

委 員 金 中 燮 ㊟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7年 8月

中文 概要

这本“2006中国流行语”是收集了2006年正在中国流行的热门话题。这次为了深入了解中国国情和学习中国语言的表达方法，因此，翻译了“2006中国流行语”。

在本书内容里介绍了五个主要标题，第一，时政类流行语，第二，国际类流行语，第三，房地产类流行语，第四，汽车类流行语，第五，体育类流行语。特别，在时政类流行语当中提到了‘自主创新’和‘社会主义新农村’，由此能了解到现在中国国内的政策和社会情况，而且在房地产类流行语中也了解到各种各类的有关专用词汇与词语。

另外，在这本书内容里还介绍了各种各类的在报刊里登过的内容，所以有些内容是对我们来说，可能会有比较陌生的感觉。可是把这些内容要清楚地翻译的话，翻译人员就必须深入地了解该国家的文化和有关知识。万一，翻译人员不太了解有关内容，就会出现误译或失误的情况。此外，有关‘房地产’和‘足球’等的专用词汇，要翻译成最准确的韩语，翻译人员应具备丰富的常识和知识才能翻成最准确的韩语。

从而，在翻译过程中，译者在直译和意译之间考虑了许多次。假如把“经济适用房”直接使用原来的汉字，对一般读者来说，只能了解表面上的意思，但不能完全了解词语的本意。因此，翻译人员在翻译时，要选择以最恰当的语言来表达原文的内容。这次我尽全力利用了最准确的表达方式，使读者容易了解这本书的内容。

总而言之，翻译人员就要有责任感，也就是说绝对不应误译，为了避免误译，翻译人员则通过多样的方式来学习翻译技术。通过这次翻译也给我提供了学习机会，然而我还希望读者们的慷慨质责。

목 차

1. 제1장 시사정치부문 유행어	1
1) 자주적 혁신(自主創新) / 1	
2) 공산당원의 선진성 유지 교육(保持共產黨員先進性教育) / 3	
3) 11.5계획(十一五計劃) / 5	
4) 절약형 사회(節約型社會) / 7	
5) 反 국가 분열법(反分裂國家法) / 8	
6) 제16기 5중전회(十六屆五中全會) / 10	
7) 치아이쥬(祁愛群) / 11	
8) 장윈첸(張云泉) / 13	
9) 사회주의 신농촌(社會主義新農村) / 18	
10) 환경 평가(環評) / 20	
2. 제2장 국제부문 유행어	21
1) 反 파시즘 전쟁승리 60주년(反法四斯戰爭勝利60周年) / 21	
2) 4국 연맹(四國聯盟) / 25	
3) 아이치 세계 박람회(愛知世博) / 27	
4) 중국관(中國館) / 29	
5) 상임 이사국 가입(入常) / 30	
6) 허리케인 카트리나(卡特里娜颶風) / 31	
7) 런던 폭탄테러 사건(倫敦爆炸) / 32	
8) 색깔혁명(顏色革命) / 33	
9) EU 헌장(歐憲) / 34	
10)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 / 34	
3. 제3장 부동산부문 유행어	34
1) 종합 대책(組合拳) / 35	
2) 집값 안정(穩定房價) / 36	
3) 부동산시장 조정(房地產市場調控) / 37	
4) 집값 부풀리기(哄抬房價) / 38	
5) 특가 주택(特價房) / 39	

- 6) 개인출자 공동주택 건설(個人集資建房) / 40
- 7) 일반 주택 기준(普通住房標準) / 40
- 8) 국8조(國8條) / 41
- 9) 부동산 대출 신정책(房貸新政) / 42
- 10) 부동산 원가(房價成本) / 42

4. 제4장 자동차부문 유행어 ————— 44

- 1) 소배기량 자동차(小排量汽車) / 44
- 2) 혼합형 엔진자동차(混合動力汽車) / 46
- 3)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普銳斯) / 46
- 4) 미래형 자동차(新能源汽車) / 47
- 5) 경제형 자동차(經濟型車) / 48
- 6) 소형 차량 제한(小限) / 49
- 7) 국내 브랜드(自主品牌) / 50
- 8) OBD 장치(On Board Diagnostic) / 51
- 9) 최적배기량(黃金排量) / 51
- 10) 자동차 과잉생산(汽車產能過剩) / 52

5. 제5장 체육부문 유행어 ————— 53

- 1) 펑샤이(彭帥) / 53
- 2) 덩쥘웨이(丁俊暉) / 54
- 3) 세야룽(謝亞龍) / 54
- 4) 푸와(福娃) / 55
- 5) 츠상빈(遲尚斌) / 56
- 6) 후카이(胡凱) / 56
- 7)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同一個世界, 同一個夢想) / 57
- 8) 그라운드외 무법자(球霸) / 57
- 9) 런던 올림픽(倫敦新奧) / 59
- 10) 쑤잉제 사건(孫英杰事件) / 59

제1장 : 시사정치부문 유행어

서두 : “자주적 혁신”, 중화민족의 새로운 외침

① “자주적 혁신”이라는 유행어가 현재 중국 대륙을 휩쓸고 있다. 이는 중화민족이 새롭게 도약하려는 외침이다. ② “공산당원의 선진성 유지 교육”에 당원이 참여하고 있다. ③ “16기 5중전회”에서 제기된 “11.5계획”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 국민들의 관심 속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④ 치아이첸(祁愛群), 장원첸(張云泉) 등의 우수 공산당원들의 국민에 대한 충성심, 청렴결백, 사심 없는 봉사정신은 널리 모범이 되고 있다.

시사정치부문 유행어 : 자주적 혁신(自主創新), 공산당원의 선진성 유지 교육(保持共產黨員先進性教育), “11.5계획”(十一五計劃), 절약형 사회(節約型社會), 反 국가 분열법(反分裂國家法), 제16기 5중전회(第16屆5中全會), 치아이첸(祁愛群), 장원첸(張云泉), 사회주의 신농촌(社會主義新農村), 환경평가(環評)

1) 자주적 혁신(自主創新)

보도내용 : 자주적 혁신, 2005년을 빛내다

“자주적 혁신정신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이 모든 것이 희망의 메시지이다”. 오랜 세월 자주적 혁신을 호소해오고 있는 무선 통신기술 전문가이자 베이징 신웨이(新威)통신기술사 사장 천웨이(陳衛) 박사에게 2005년은 많은 것이 새로워져 그의 눈을 반짝 뜨게 한 해였다.

▶ 이 해에 중앙 지도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자주적 혁신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연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중요한 발표를 했다.

▶ 공산당의 16기 5중전회는 《중공 중앙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1차 5개년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를 심의·통과시켰다. 이 《건의》는 자주적 혁신능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주적 지적 재산권과 유명 브랜드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업” 육성을 향후 5개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있다.

▶ 이 해에 중국은 중·장기과학기술과 발전전략계획을 제정했다. 이제 자주적 혁신은 미래 중국 과학기술발전 청사진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 앞으로 직면할 수많은 도전에 대비해 중국은 “국가의 혁신적 체계 건설”과 “혁신형 국가 건설” 가속화라는 중요 전략을 채택했다.

십년 전 천 박사는 미국에서 귀국한 후 신웨이(新威)사를 설립했다. 비록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갖춘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상품을 연구하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그 후로도 그와 그의 회사는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끝없는 고비”를 겪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봄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

2005년, 자주적 혁신이 화두로 떠오른 데다, 기업의 자주적 혁신 장려정책이 연이어 제정됨에 따라, 그는 그 “봄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가 이렇게 느낀 이유는 중국 과학기술 발전전략, 나아가 전체 경제발전모델이 눈에 띄게 조정됐기 때문이다. 즉, 자주적 혁신능력 강화가 이미 중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기점이자 산업구조조정과 성장방식전환의 주요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이러한 조정은 중국이 기존 발전모델에 대해 점점 더 심도 깊게 이해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개혁개방 20년간 중국은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두긴 했지만, 많은 분야에서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탓에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여전히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DVD업계는 외국회사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진정한 국산제품이 겨우 10%에 불과한 자동차 제조업계도 세계적인 자동차 거두들 틈새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치루고 있다. 또한 의약업계는 자체적인 지적재산권 상품이 결핍된 데다, 화학약품의 97%가 복제약품이며, 의료기기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무역업계에서는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전문적인 반덤핑 조례안이 해마다 증가하는 바람에 값싼 노동력과 다량의 자원에너지 소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 경쟁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자주적 혁신정신이 부족하면 필연적으로 타인의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컴퓨터 한 대를 팔아봐야 겨우 “과 한 단 살 돈”밖에 남지 않고, 와이셔츠 10억 벌이나 팔아야만 보잉기 한 대와 맞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명대사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선진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국의 혁신형 국가노선이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고 있다.

“중국은 1인당 GDP가 1,000달러에 불과하지만, 과학기술 혁신 종합지표는 1인당 GDP 5,000달러에서 6,000달러 수준의 국가와 맞먹는다. 게다가 과학기술 인적 자원 총수는 3,200만 명, 연구개발 인력 총수는 105만 명으로 각각 세계 제1, 2위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체계적인 학과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상용(尙勇) 중국 과학기술부 부부장은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자주적 혁신노선을 채택하고, 혁신형 국가건설에 필요한 최대 장점이자 중요한 기초”라고 말했다

(발췌 : 2005년 12월 12일 新華社)

2) 공산당원의 선진성 유지 교육(保持共產黨員先進性教育)

보도내용 : 중공 중앙, “3개 대표” 사상을 바탕으로
공산당원의 선진성 유지 교육사업 실시

중국 공산당의 16기 전국대표대회(16大)와 제16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이하 16기 4중전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당의 집권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중대 프로젝트를 전면 추진하는 한편, 시대 선도적인 지위와 역사적인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 당 중앙은 2005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전 당에서 “3개 대표”¹⁾ 중요사상의 실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산당원의 선진성 유지 교육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목표

- (一) 당원의 자질 향상.
- (二) 기층조직 강화.
- (三) 국민을 위한 봉사.

1) 3개 대표이론 : 선진 생산력, 선진문화,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

(四) 항목별 사업 촉진.

본 교육사업은 현실적인 문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고,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민들의 만족여부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도원칙

- (一) 이론과 현실을 접목해 현실적인 성과에 주력한다.
- (二) 적극적인 교육과 평가 및 자아비판에 힘쓴다.
- (三) 당의 민주화와 균중노선을 견지한다.
- (四) 지도급 간부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한다.
- (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분담 지도한다.

본 교육사업은 크게 세 조직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제1조직 : 현(縣)과 현(縣)급 이상의 당정기관과 부분 기획사업 기관은 2005년 1월부터 추진해 2005년 6월까지는 기본적으로 마무리한다.

제2조직 : 도시 기층조직과 향(鄉)·진(鎭) 기관은 2005년 7월부터 추진해 2005년 12월까지는 기본적으로 마무리한다.

제3조직 : 농촌과 부분 당정기관은 2006년 1월부터 추진해 2006년 6월까지는 기본적으로 마무리한다.

본 교육사업은 크게 3 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각 조직은 기관별로 교육의 질이 확보됐다는 전제 하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단계 : 학습참가

제2단계 : 분석평가

제3단계 : 수준향상을 위한 정리·수정작업.

집중학습교육이 끝나면 일정기간 동안 교육성과를 정리·수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조직 지도

(一) 지도책임제를 확립한다. 선진성 유지 교육사업의 지도체계는 당내 조직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 (二) 당 지도간부간의 연계제도를 확립한다.
- (三) 감독 제도를 확립한다.
- (四) 국민의 평가 제도를 확립한다. 다수의 국민이 불만족할 때에는 필히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한다.

(발췌 : 2005년 1월 9일 新華社)

3) “11.5”계획(“十一五”計劃)

보도내용 : “11.5”계획은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오나

중국은 공산당의 제16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이하 16기 5중전회)에서 《중공 중앙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를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11.5 계획”은 향후 10년간의 발전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관건적인 계획이며, 민생분야에 집중투자된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 국가경제사회는 빠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며, 동시에 국민들의 생활에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일반적인 발전에서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 부여

과학발전은 인간중심의 발전이 되어야 한다. 5중전회에서 제기된 “11.5”경제사회발전의 주요목표 중 많은 것들은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9년 의무교육과정의 보급과 정착, 도시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체계 건립과 빈곤인구 감소 등을 들 수 있으며, 도농의 수입수준 및 생활수준 향상, 물가안정을 통한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보건 및 환경 분야의 환경개선 등도 그 일환이다. 이밖에도 민주법제와 정신문명을 건설하고, 사회치안문제와 생산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해나간다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둘째, “선부론(先富論)에서 공부론(共富論)”으로 방향 선회

5중전회는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11.5”계획 기간 정부는 국민의 수입 분배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출구조를 재조정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체계를 마련해, 국민에게 더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새로 증가되는 재정을 농촌 및 농업과 농민에게 중점 투자함으로써 재정경상수입을 증가하는 성장 폭을 이룰 것이다. 서부대개발, 동북아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발전, 중부지역 발전 등의 전략들도 동부 연해지역을 따라잡기 위한 이 지역의 발걸음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회의는 또 “노동에 따른 분배를 기본으로 각종 분배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완비하고 생산요소를 공헌도에 따라 분배하는 한편, 공정성 강화와 소득 분배의 조절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신을 성실히 이행해나간다면, 지역 간 또는 사회구성원간의 수입 분배 격차를 점차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보장체계 마련

노동보장사업에 호재로 작용될 이로운 정책이 잇달아 출시될 예정이어서 “11.5” 기간 동안 4,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의는 또 경제발전수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고, 도시 노동자의 양로, 의료, 실업, 산업재해 및 생명보험제도를 마련할 것이며, 도시 이주 노동자들의 사회보장문제를 착실히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실효성이 높은 정책은 국민들에게 더욱 믿을 수 있는 생활보장제도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높은 병원문턱, 고가의 진료비, 비싼 교육비, 비싼 학비 등 절실한 민생문제해결에 주력

최근 들어 의약품유통업계의 부패문제가 대두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만 7천여 개의 약품유통기업이 “현란한 수완”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일부 기업은 병원장, 약사, 임상 의사, 조제과 과장 등을 상대로 “접대비” 명목으로써 이익을 갈취해왔다. 게다가 이 “접대비”의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시켜, 높은 병원문턱, 고가의 진료비 등 엄청난 반발을 일으킨 문제들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무원 관련부문은 조치를 취해 해결에 힘쓰고 있으며, 국가 역시 향후 몇 년 안에 의료체계 개혁과 기제개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교육체제의 고질병도 줄곧 사회각계의 우려를 사고 있으며, 비싼 교육비, 비싼 학비 등의 문제도 많은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농촌 의무교육 문제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똑같은 아이들인데도 동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농촌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도시 아이들에 비해 스타트라인이 다르다. 왜냐하면 교육투자부족으로 많은 교사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내륙에서 연해지역으로, 낙후지역에서 발전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5중전회는 “11.5”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에서 “9년 의무교육과정을 보급·정착”시키고,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보건과 환경 등의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절실한 민생문제도 적절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도농간의 종합적인 경제사회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신농촌의 아름다운 미래 설계

“생산력 증대, 생활개선, 문명적 농촌의 건설, 농촌 면모일신, 민주적 관리” 5중 전회는 사회주의 신농촌의 아름다운 미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기본 업무”에서부터 “최우선적인 업무”, 당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재정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공업으로 농업, 도시가 농촌발전을 이끌어나간다면, 농민들은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섯째, 환경안전, 식품안전, 치안안전,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대대적으로 향상

瘦肉精 성장촉진제²⁾, 표백제, 농약잔류문제 등…… 식생활 문화가 나날이 풍요로워지고 있는 요즘,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식품 생산가공과 유통분야 기업들은 기준을 낮추고, 품질을 속이거나 모조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또한 불량 이유식,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쌀 등의 피해도 적지 않으며,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문제는 이제 그리 놀라운 문제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 중앙 및 국무원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11.5”계획의 건의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환경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 특히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환경문제들을 해결해나간다.”

“식품, 의약품위생 관리감독과 종합적인 사회치안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각종 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비롯해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지켜나간다.”

(발췌 : 2005년 10월 19일 新華社)

4) 절약형 사회(節約型社會)

2) 瘦肉精 : 瘦肉精 을 돼지사료에 섞어 돼지에게 먹일 경우, 돼지의 성장이 빨라지며 돼지비계 부분이 적어져 살코기 부분이 많아지게 됨.

보도내용 : 베이징, 톈진, 상하이, “절약형 사회발전 전략” 선도

절약형 사회란 절약이념을 생산, 유통, 소비와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적용시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등의 전통 경제성장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 향상을 바탕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이용효율을 높임으로써, 최소한의 자원소비와 환경원가로 최대한의 경제효과와 사회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사회과학원 수량경제와 사회기술 연구소 치젠궈(齊建國)부소장, 미국 환경보호협회 수석 경제학자 (Daniel J. Du dek 杜丹德)박사, 상하이 과학기술성과 촉진전화회(科技成果促進轉化會) 과학기술자문부 탕이링(唐益齡) 부주임 등의 국내외전문가들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세 지역은 산업 밀집도가 높고,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있어 경제효과를 얻기에 용이하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첫째, 앞선 기술로 선진 과학연구 성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 다량의 우수기술과 인재를 갖추고 있다. 셋째, 정보수집 및 적시에 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을 응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넷째, 자금투자능력이 충분하다. 정부도 고체폐기물 처리 등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섯째,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위 세 도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를 바탕으로 “절약형 사회발전전략”을 구축·추진할 수 있다.

- ▶ 절약형 산업구조와 생태형 소비구조를 구축한다.
- ▶ 자원절약 기술의 연구개발 강화, 전환, 응용을 확대해나간다.
- ▶ 자원절약의 “жат대”와 자원관리의 “체적” 확립에 힘쓴다.
- ▶ 전 사회적인 절약의식을 고취한다.

(발췌 : 2005년 7월 8일 新華社)

5) 反 국가 분열법(反分裂國家法)

보도내용 : 反 국가 분열법

(2005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제1조 “타이완 독립”을 부추기는 분열세력의 분열행위를 저지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타이완해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한편,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지구상에는 단 하나의 중국이 있을 뿐이다. 대륙과 타이완은 하나의 중

국이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은 타이완 동포들을 포함한 전 중국인들의 공동 의무이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타이완 독립” 분열세력이 어떠한 명의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타이완을 중국에서 분리시켜 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제3조 타이완 문제는 중국내전이 남긴 문제다.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내정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받을 수 없다.

제4조 통일조국의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타이완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인의 신성한 책임이다.

제5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밑바탕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동포의 근본이익에 가장 부합하며, 국가는 정의와 노력을 다해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실현한 후에는 타이완은 내륙과 다른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다.

제6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조치로 타이완의 평화안정을 보호하고 양안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一) 양안 국민들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해증진 및 상호간 신뢰를 증진한다.

(二) 양안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우편, 항공, 무역 등의 직접적인 교류로 양안의 밀접한 경제관계와 호혜평등을 실현한다.

(三) 양안의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건, 체육교류를 통해 중화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드높이는데 힘을 모은다.

(四) 양안이 함께 범죄단절에 앞장선다.

(五) 타이완의 평화안정과 양안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유익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는 법에 의거 타이완 동포의 권익을 보호한다.

제7조 국가는 양안간의 평등한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협상은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될 것이며, 융통성 있고 다양한 방법이 채택될 것이다.

양안문제는 다음 사항에 대해 협상하게 될 것이다.

- (一) 양안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는다.
- (二) 양안관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三) 평화통일의 절차와 계획.
- (四) 타이완 당국의 정치적 지위.
- (五)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지위에 걸 맞는 활동공간 보장.
- (六) 평화통일 실현과 관련된 기타 문제.

제8조 “타이완 독립” 분열세력이 어떠한 명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타이완이 중국에서 분리해나갈 수 있는 사실이나 중대사건을 일으켰을 경우, 혹은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될 경우, 국가는 비평화적인 방식 또는 기타 필요조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른 비평화적인 방식 또는 기타 필요조치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결정·실시하며, 동시에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본 규정에 따라 비평화적인 방식 또는 기타 필요조치를 채택했을 때, 국가는 타이완 국민과 타이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 및 정당한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 동시에 국가는 또 법에 따라 중국 기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타이완 동포의 권익을 보호한다.

제10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발췌 : 2005년 3월 15일 新華社)

6) 제16기 5중전회(第16屆五中全會)

보도내용 : 중공 중앙 16기 5중전회 베이징에서 개최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16기 5중전회)가 2005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발표한 중앙정치국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청취, 토론한 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제

정에 관한 건의》를 통과시켰다. 또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전체회의에서 《건의(토론원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회의는 16기 전국대표회의에서 제기됐던 21세기 초 20년 내 전면적인 소강사회건설이라는 총체적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11.5”기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구조의 고도화, 효율향상, 원가절감 등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1인당 GDP를 2000년에 비해 두 배까지 끌어올린다. 둘째, 자원이용효율을 높여 “11.5”기간 말까지 GDP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을 20%정도 낮춘다. 셋째, 자주적 지적재산권과 브랜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업을 육성한다. 넷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켜 개방형경제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국제수지를 안정시킨다. 다섯째, 9년 의무교육과정 정착, 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함으로써 빈곤인구를 감소시켜나간다. 여섯째, 도농 간 주민들의 수입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물가를 안정시켜,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보건과 환경 등의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일곱째, 민주법제와 정신문명 건설에 새로운 성과를 이루고, 사회치안과 안정적인 생산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조화로운 사회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이룬다.

(발췌 : 2005년 10월 11일 新華社)

7) 치아이쥘(祁愛群)

보도내용 : 치아이쥘, 징장(靖江)을 떠난 “연꽃”

장쑤(江蘇)성 징장(靖江)시 징청(靖城)진 바이무(柏木)촌 치자따이(祁家埭)에는 대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고, 집안은 잠초로 가득한 보잘 것 없는 민가가 있다. 치아이쥘은 1963년 1월 지금은 폐허로 변해버린 이 치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치콩파(祁孔法)가 1960년 상하이에서 라싸(拉薩)로 이주하는 바람에 어머니 우슈젠(吳秀珍)은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보며, 낮에는 일하고 밤이 되면 아이들과 노부모를 위해 샴바느질을 해야 했다. 고달픈 생활 속에서 그녀는 줄곧 셋째가 커서 “고생활 운명”일 것 같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4남매 중 셋째였던 치아이쥘은 어려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 온화하면서도 내성적이었던 그녀는 늘 묵묵히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으며, 돼지에게 먹일 잡초를 캐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다. 또 두세 살부터 언니, 오빠를 따라다니며 농사를 거들기도 했다.

바이무(柏木)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퇴직한 선생님들은 아직도 무척 성실했던 학생으로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반에서도 늘 성적이 우수했으며, 농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아홉 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그녀는 어머니가 혼자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어머니는 자신 역시 편찮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준비가 끝나면 삶은 내색 하나 없이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우셨다. 할머니의 임종을 앞두고도 가족들을 위해 집안일을 놓지 않고, 통증과 싸워나가던 강인한 모습은 오랫동안 그녀의 뇌리에 남아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사람은 고통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그녀가 고산병이 가져오는 각종 질병을 이겨내고 20여 년 동안 시장(西藏)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다.

1977년, 아버지를 따라 14년을 보낸 징장을 떠나 시장에 도착한 그녀는 이 차디찬 고원에서 기적의 꽃을 피워냈다. 시장에서 보낸 20여 년 동안 그녀는 세 차례 기로에 섰었다. 남방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시장의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느냐의 기로에서, 그녀는 세 번 모두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만큼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 더욱이 장베이(藏北) 지역은 너무 가난해 도와줄 손길이 절실하다. 그들을 저버릴 수는 없다”며 가족들을 설득했다.

그녀는 20여 년 동안 세 번 징장을 다녀갔다. 첫 번째 방문은 1983년 오빠 치룡린(祁榮霖)이 결혼할 때였는데, 이때 그녀는 반년을 고향에서 보냈다. 두 번째는 1992년 딸을 보러 상하이에 갔다가 한동안 징장에서 머물렀을 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97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아버지 치공파(祁孔法)의 부름을 받고, 징장에서 설을 보낼 때였다.

20여 년 동안 십여 차례 동부를 다녀가며 그녀는 동부지방의 경제적인 발전과 풍요로운 생활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

하지만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하려 했던 그녀는 불행히도 2003년 12월, 고산증이 심한 데다 4시간이나 쉬지 않고 일하는 바람에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오빠 치룡린은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그녀와 나누었던 통화내용을 생

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동생에게 이모부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왜냐하면 그는 동생이 수년간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쓸 것과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검사를 받으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음날 그는 치아이첸의 부고를 받아야만 했다.

안타까움과 눈물 속에 오빠는 동생의 장례를 치렀다. 가족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그녀가 생전에 사용했던 유물이라곤 초라한 옷가지 몇 벌이 전부라는 것이었다.

간쑤성 출신인 남편 웬용(袁勇) 씨는 그녀의 대학 동기이며 시장 발전을 위해 시장으로 이주해온 한족 즉, “라오시장(老西藏)”의 2세로서 오랫동안 나취(那曲) 축산업국에서 일했다. 하지만 그와 아내가 20년간 일하면서 저축한 돈은 대부분 고향방문 경비로 쓰였다. 게다가 딸아이가 상하이로 이주하면서, 매달 600~700 위안의 생활비를 보내야 했으며, 시댁에도 용돈을 보내는 등 사실상 20년 동안 그들이 저축한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한때 치씨 가족들은 치아이첸이 상하이로 직장을 옮기기만 한다면, 다른 뒷걱정을 하지 않도록 모두 두 팔 걷고 그녀의 생계를 돕겠다고 했다. 또한 삼형제도 상하이에 있는 부모님의 집을 그녀에게 물려주는데 흔쾌히 동의했다. 그러나 치아이첸은 이 모든 배려를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따라서 타인의 도움을 원치 않았다. 자신의 가족도 예외일리가 없었다. 그녀의 인생철학이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폐를 끼치진 않겠다.”라는 것만 봐도 그녀의 강직함을 엿볼 수 있다.

요즘 징장 근로자들 모두가 치아이첸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말에 아버지 치콩파는 그녀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지켰던 20여년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생전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자식에게 그동안 못 다한 사랑을 채워주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었다. 이런 그녀의 유언에 따라 가족들은 그녀의 유해를 상하이 공동묘지에 묻었다.

(출처 2005년 5월 20일 人民日報)

8) 장윈첸(張雲泉)

우수칼럼 : 장원첸,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관리가 관리티를 내서는 안 된다.”

태평한 관리, 향락을 누리는 관리, 흐지부지한 관리, 체면치레하는 관리, 더더군다나 탐관오리, 부패한 관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 22년 간 청렴결백함으로 시민의 “신문고”가 되기를 자처했던 그는 바로 장쑤(江蘇)성 타이저우(泰州)시 민원국 국장이었다.

장원첸은 22년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버원 해결사”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다. 민원국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매년 평균 2천여 명의 시민들을 만나고, 2천여 통의 민원편지를 받았으며, 천여 통의 전화문의를 처리해왔다. 24시간 꺼질 줄 모르는 그의 휴대폰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울려댔다. 매 통화마다 간결한 답변으로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존경스러울 정도였다.

22년간 그는 가족들과 설, 추석 등의 명절을 보낸 적이 거의 없다. 명절에도 그는 생활용품을 들고 빈곤가정을 찾아가거나 독거노인들과 함께 설을 보내곤 했다. 그의 손길은 늘 의지할 데 없고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 또한 때론 형처럼, 때론 아들처럼, 때론 피를 나눈 가족처럼 따스한 말과 온정으로 소외되고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었으며, 이들이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다.

민원국(信訪局)이나 인터뷰(采訪)에 모두 “방(訪)”자를 쓰고 있다. 그 이유는 당과 시민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라는 뜻을 담기 위해서이다.

장 국장은 세상을 떠나더라도 일기장이나 노트는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종일 해도 모자랄 만큼 복잡하고, 어렵고, 억울한 민원들이 쌓여있긴 하지만, 문제를 처리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젊은 민원국 직원들에게도 ‘민원국을 찾아오는 시민들한테서 장점을 배워라’라고 강조해왔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관리가 관리티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태껏 민원국을 찾는 시민들을 상식이 통하지 않거나 무식하다는 등의 이유로 약자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민원국을 당과 정부를 대표하는 곳이라 생각하고 도움을 청해오기 때문이다.

그는 또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다음의 “네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친근함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로 시민들의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문제를 분석, 해결하는 조율능력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고 신속히 사태를 수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 등이다. 만약 “격분한 시민이 내게 화풀이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위안이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화풀이를 받아들일 각오가 돼있다. 민원 국장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최고라는 찬사를 받을 때이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장원첸이라는 공산당원의 이미지가 차츰 마음속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철 입, 강철 손, 강철 다리, 강철 머리, 강철 마음을 가진 그야말로 “오철(五鐵)”국장이었다.

강철 입 : 그는 빈말, 상투적인 말이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만을 한다. 시민들을 대할 때마다 그는 늘 진심어린 눈으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을 대하곤 한다. 또한 그에게는 “사람을 한 눈에 사로잡는 카리스마”가 있다. 조리 있고 능수능란한 언변은 상대방을 감복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강철 입”은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22년 동안 민원해결사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단련된 것이다. 골치 아프고 민감한 사안을 부드러운 말로 해결하려면 웬만한 두뇌로는 안 된다. 일은 법을 따르고 말은 마음을 따르라고 했다. “좋은 말 한마디는 한겨울의 혹한도 녹일 수 있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한여름에도 냉기가 되는 법이다.” 그는 “물리적 여건이 충분치 않더라도 이치로써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마음만은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 손 : 중국 사회는 여전히 과도기를 겪고 있다. “황금기”이면서 동시에 “갈등심화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확실한 대안 없이 해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더더군다나 힘도 권력도 없는 민원국은 오로지 조율능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조직의 머리에서 끝까지 누가 봐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들어냈다. 이것으로 그는 각급 지도자와 관련기관 및 당사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려해보겠다”는 등의 구실을 대며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또 정책과 법률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라면, 그것이 비록 단 1%의 타당성만을 갖고 있더라도, 100%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왔다.

그는 충돌사건, 복잡한 갈등에 대해서도 단연 “고수”이다. 그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 온 중국 전통의 “조화로움”, “화합과 단결”이라는 사상과 방식을 통해 집단

적인 사건과 갈등을 처리해왔다. 그는 시민들에게 절실한 현실문제도 능숙하게 처리해내며 당정기관과 충돌하거나 집단항의를 하는 시민은 물론, 극소수의 막무가내인 시민까지 그의 손을 거치면 모두 조용히 해결되곤 한다. 이렇게 그는 당의 원칙, 수준, 특성을 참고하여 문제를 처리한다.

강철 다리 : 시민들에게 그는 가족과 다름없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는 곳곳의 시민들을 모두 살피며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는 매번 상급기관을 찾아가 시민들의 불만, 억울함,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눈감을 줄 모르며 옳은 말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다급한 일,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번거로운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진심으로 당과 정부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앞장서 왔다.

강철 머리 : 그는 늘 시민만을 생각한다. 그는 민원국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청렴결백한 시민의 종이기를 자처해 왔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정의 부를 꾀한 적도 없다. 그의 아내와 친척들 중에는 아홉 명이나 실직했을 정도이며, 시에서 민원국의 행정관련 일자리가 나왔을 때도, 그는 오히려 직장을 잃은 한 부부의 자녀에게 일자리를 주었다. 한 번은 “원첸산장”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다. 그 곳 사장은 그에게 “이 산장은 나 장원첸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써 달라며 6만 위안을 내밀었지만, 그는 “6만 위안은 커녕, 6백만 위안, 6천만 위안을 준다 해도 쓸 수 없다”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는 강철 머리를 가진 국장이다.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늘 선두에 서서 목숨을 불사하는 영웅적인 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모 기업과 수많은 시민들이 부딪힌 충돌사건을 처리할 때에도 그는 온몸으로 불법 집단의 폭력을 막아냈으며, 기절한 한 여공을 구하기 위해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드려 맞았고, 왼쪽 눈은 출혈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왼쪽 안구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놀라긴 했지만, 각계 의료진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왼쪽 눈을 잃는 불행만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그는 평생 장애자로 살아야 했다. 시력은 1.5에서 0.15로 떨어져버렸고, 늘 붓고 눈물이 흐르는 눈은 햇빛을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그는 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다. 그는 식칼과 폭탄을 들고 찾아온 시민을 맨손으로 막아냈으며, 정신병 환자가 들고 있던 날카로운 깨진 술병도 사력을 다해 저지해냈다. 그 정신병 환자에게 물리는 바람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쳤던 손가락은 아직도 구부러지지 않는다. 시민들의 눈에는 장원첸이란 공산당원은 마치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강철 마음 :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나 장원첸을 찾으세요. 설령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강철 같은 마음으로 늘 시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왔다. 이렇게 그는 8년, 심지어는 17년의 시간으로 당의 임무를 완성하고, 당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노력을 다했다. 강철 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그는 “시민들이 공산당을 그들의 희망으로 보는 만큼, 절대 공산당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에게는 “3비(三比)”가 있다. 이상과 신념은 혁명 열사와 비교하고, 업무여건은 모범인물과 비교하고, 생활수준은 빈곤한 시민과 비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에게는 또 3가지 “0거리”도 있다. 바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시민들과 “0거리”에서 만나는 것, 가족을 대하듯 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시민들을 “0거리”에서 느끼는 것,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교류하고 “0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이다. 그는 또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원국 간부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이 “오철(五鐵)” 국장은 자주 “가짜 국장”으로 오인받기도 한다.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장원첸은 늘 서민들의 편에서 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학업의 기회를 잃은 이들과 빈곤층 수십여 명에게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4만여 위안을 지원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해 동료들에게까지 출장비를 최대한 절약하라고 당부한다. 동료 4명과 광저우(廣州)로 출장 갔을 때였다. 출장비를 아끼기 위해 운전사와 교대로 차를 몰던 그는 “우리 4명이 비행기로 이동하려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에 비해 거의 2천 위안을 더 써야 한다. 이 돈을 어려운 빈곤층을 위해 쓴다면 얼마나 보람되겠나!”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출장 시에도 늘 전기밥솥을 가지고 다녔다. 화장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는 70위안짜리 초라한 여관에 묵으면서 그 전기밥솥에 죽을 끓여 먹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었다. 시정부 부비서와 민원국장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관 종업원이 이들을 몰래 경찰에 신고해버린 것이다. 신고를 받고 파출소에서 달려온 경찰은 바로 이들의 신분증부터 확인했다. 잠시 후 그 경찰은 겸연쩍은 미소를 띠우며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군요.”라며 그에게 예를 갖췄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공직자들을 봐왔지만 당신 같은 국장은 처음입니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출처 2005년 4월 7일 文匯報)

9) 사회주의 신농촌(社會主義新農村)

보도내용 : “신농촌” 건설의 3대 과제

곧 다가올 2006년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시작의 첫 해이다.

“신농촌” 건설의 과제는 무엇인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다음의 세 가지였다. 자금은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형식에 그치지 않을 것인가?

자금은 어디서 끌어오나? “수혈”인가? “조혈”인가?

발전개혁위원회 산업연구소 전문가들이 장시(江西)성, 쓰촨(四川)성 25개 마을을 조사한 결과, “신농촌” 건설 기준에 맞춰 농촌의 도로, 식수, 가스, 전력, 통신, 방송 및 TV 등의 인프라시설을 만족시키려면, 이미 완성된 투자사업 외에도 농민 1인당 약 1,700위안에서 4,900위안의 투자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빈곤지역과 일반지역의 투자수요가 비교적 큰 반면, 도시근교지역의 투자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부, 거액 투자

경제 전문가들은 상수도, 메탄가스, 도로포장 등의 인프라시설만 해도 전국적으로 4조 위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거금을 어디서 끌어와야 하는 걸까? 과연 정부재정만으로도 충당이 가능할까?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는 국가 통계국의 1차 예산에 근거, 올해 재정수입을 약 3조 위안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예산외 수입을 더하면 사용가능한 재정규모가 전체 GDP의 30%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를 볼 때, 정부의 재정능력이 공업으로 농업을 촉진하고, 도시가 농촌을 감싸는 “以工補農, 以城帶鄉”의 발전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농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던 국가에 상납하는 식량세가 2년 전 폐지되면서, 현(縣)과 향(鄉)의 재정에 약 800억 위안 정도의 구멍이 생겼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소한 세수수입의 8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20%는 성 정부가 정책에 따라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농촌에 지원된 국채 비율은 2004년에 비해 2.4% 포인트 증가했다. 그리고 농촌의 인프라 건설, 생태건설 및 농업 과학기술 발전, 빈농 지원과 농촌의 의료 및 사회사업에도 각각 292억 위안과 14억 위안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예산배정체제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신농촌 건설의 실제 수요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 인프라시설 건설자금의 일부분을 떼어내, 농촌인프라시설 구축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었다. 올해 중국은 사회고정자산은 8조 위안을 돌파할 것이며, 도시 인프라시설 건설규모도 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서 매년 10%만 떼어내더라도 2천억 위안이 넘는다. 이런 추세라면 15년이면 3조 위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난국” 돌파는 기제개혁에 달렸다

최근 농업세가 폐지되면서 중국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온 “황종희 법칙(黃宗羲定律)³⁾”에서 벗어나게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농자금 가격상승 등으로 농민들이 수입증대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도시와 농촌 간 수입격차까지 큰 탓에 이런 “난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2차 개혁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 문제는 신농촌 건설의 전략 중에 있는 “농업의 조직화 능력을 강화한다”는 말로 해결될 수 있다. 즉 “농업의 조직화”를 통해 농민의 협력과 기층의 조직력을 강화해야 “신농촌” 건설에 필요한 정책과 자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대다수가 중앙정부가 각 사업마다 자금을 지원하고, 기층정부가 이에 맞게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행정적인 요소가 강해 기층조직의 횡령과 부정을 초래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농업부 한권(韓俊) 부장은 조사결과, 일부 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농촌 지원 자금이 실제 투자자금의 1/5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정책연구실 정신리(鄭新立) 부주임은 시찰단을 이끌고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시찰한 적이 있다. 그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정부가 우선 지붕개조, 도로포장, 상하수도관 건설 등의 핵심 사업을 확정된 뒤, 농촌 주민들이 직접 가장 시급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책임질 농촌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縣)급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정부가 다시 시멘트와 철근 등을 지원하며 직접적으로 농민들과 사업을 완성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농민들에게 최대 30년간의 저리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었으며, 농

3) 황종희 법칙 : 역대 중국 토지제도를 설명하며 개혁 뒤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현상을 지적한 황종희의 학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부른 개혁의 함정을 일컫는 말

협과 농민조직을 통해 관련 자금을 직접 집집마다 전달하고 있었다. 정 부주임은 또 이 모든 것들은 중국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의 농민 경제협력조직과 민간 농촌 금융조직은 “어린 새싹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잘 다듬고 규범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 과제 해결이 시급

일부 간부와 전문가들은 GDP와 외자유치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지도자들의 심사체계를 개선해, 현(縣)과 향(鄉)의 간부들이 직접 “신농촌”건설 현장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농촌 종합개혁의 양대 과제로 첫째, 농촌 공공 재정체계 건립과 둘째, 농촌 자치 구조를 개혁하는 한편, 농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기제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농업세폐지 이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한 양대 기준이기도 하다.

루웨이(陸學藝)는 “신농촌”건설의 전략목표를 실현하려면 호적제도와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로써 도농간 제도적 모순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발췌 : 2005년 12월 12일 新華社)

10) 환경 평가(環評)

보도내용 : 웬밍웬(圓明園) : 환경평가 보고는 왜 “난산”인가?

지난 5월 11일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웬밍웬(圓明園)의 환경평가를 한 달이나 지연시킨 베이징사범대학 산하 환경평가기관이 중국 환경보호총국 판위에(潘岳) 부국장의 직접적인 비난을 받았다.

지난 4월 13일 환경보호총국이 주최한 웬밍웬 재정비프로젝트 청문회 이후, 재정비프로젝트 관련 환경영향평가(이하 약칭 “환경평가”) 보고는 단숨에 핫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중대 프로젝트의 성사여부를 결정짓는 환경평가 보고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초 웬밍웬 재정비프로젝트가 중단된 후, 웬밍웬 관리처는 베이징 사범대학 산하의 한 환경평가기관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었다. 하지만 며칠 전 이 기관은 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며 웬밍웬 관리처에게 “다른 책임자를 물색하라”고 통보했다. 우선적으로 접수만 해놓고 나중에 와서 판청을 부리는 이런 행위는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가 실시된 20여 년 동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어쨌든 이렇게 한 달이란 소중한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버렸다.

한 업계 인사는 기술적인 문제와 시간적 제약은 둘째치더라도 사회적 책임과 호수 밑바닥 누수방지, 제방보수, 조림사업 등의 환경평가 외 위험요소가 이 기관이 평가를 거절한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산과 호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웬밍웬 재정비프로젝트는 각종 언론에 보도된 후 너도 나도 떠맡기를 두려워하는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것은 사실이다. 환경평가 기관에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속, 정확한 환경평가를 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직업도덕의 커다란 과제이다.

(발췌 : 2005년 5월 12일 人民日報)

제2장 : 국제부문 유행어

서두 : 일본 아이치 세계 박람회를 빛낸 중국관

① 전 세계 국민들이 기쁨과 고통이 교차하는 가운데 “反 파시즘 전쟁승리 60주년”을 기념할 때를 즈음하여, “런던 폭탄테러 사건”이라는 또 다른 공포의 소리가 귓전을 울리고 있다. ②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하자는 중국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③ 2005년 화려하게 개막된 일본 “아이치 세계 박람회”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중국관”이 성황을 이루었다. ④ “4국 연맹”은 서둘러 유엔총회에 “상임 이사국 가입”결의 초안을 제출하는 도박을 하게 되었다. 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을 남겼다. ⑥ 각종 요인으로 인해 옛 소련 지역에서는 “색깔혁명”의 봄이 서서히 일고 있다.

국제부문 유행어 : 反 파시즘 전쟁승리 60주년(反法西斯戰爭勝利60周年), 4국 연맹(四國聯盟), 아이치 세계 박람회(愛知世博), 중국관(中國館), 상임 이사국 가입(入常), “허리케인”카트리나(卡特里娜颶風), 런던 폭탄테러 사건(倫敦爆炸), 색깔혁명(顏色革命), EU 헌장(歐憲), 조화로운 사회(和諧世界).

1) 反 파시즘 전쟁승리 60주년(反法西斯戰爭勝利60周年)

보도내용 : 反 파시즘 전쟁승리 60주년 경축

5월 9일, 승리의 날 모스크바 붉은 광장은 또 한 차례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 전투기들은 비가 그친 후의 맑은 하늘 위에 러시아 국기를 상징하는 백, 남, 홍 삼색물결을 새겨 넣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도 지난날의 항전을 회고하며 역사를 초월한 영광을 느꼈다. 오늘은 50여개 국가의 지도자들과 참전용사들에게 기쁘고도 비통한 날이다.

서막 : 국가 지도자와 관중 입장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는 하루 전 비에 말끔히 씻겨 여느 때보다 장엄했으며, 크렘린궁과 붉은 광장 주변의 중심지역은 축제를 위해 일찍부터 깨끗이 비워진 상태였다.

사열식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시작됐지만 사열을 받을 부대는 7시 30분부터 웅장한 군악과 우렁찬 군가소리와 함께 전투 깃발을 선두로 20여개의 사각형의 대열로 나뉘어, 모스크바 강변거리와 붉은 광장을 통과한 후 지정된 집결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9시경 먼저 도착한 각국의 참전용사들이 속속 붉은 광장의 관람대로 들어섰다. 검정색 바바리코트를 입은 푸틴 대통령 내외는 귀빈석 입구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을 영접했다. 이때 하늘에서 다시 흩날리기 시작한 비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 영부인은 우산을 받쳐 들었다.

9시 10분경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붉은 광장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려 귀빈석으로 걸어갔다. 푸틴 대통령은 귀빈석으로 들어선 후 후진타오 주석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뜨거운 악수와 인사말을 나눈 후 대기 중인 기자들을 향해 기념촬영을 했다. 후진타오 주석이 귀빈석에 자리하자 푸틴 대통령 내외는 계속해서 기타 국가의 지도자들을 맞이했다.

9시 40분 경 한줄기 햇빛이 이틀간 모스크바 상공을 뒤덮었던 먹구름을 뚫고 대지를 비쳤다. 이때쯤 관중들도 거의 자리를 잡았으며 군악대, 의장대, 사열식을 받을 차량 분대도 떨리는 가슴을 안고 차분히 신성한 시간을 기다렸다.

9시 57분 푸틴 대통령 내외가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귀빈석 중앙에서, 옛 소련의 장군들과 악수를 나눈 뒤 부시 대통령 내외 좌측에 자리했다.

제 1 막 :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다

10시 정각 성 바실리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수가 세 명의 의장병의 경호를 받으며 낫과 쇠망치가 새겨져 있는 소련군 전기(戰旗)를 들고, 정보(正步)로 붉은 광장을 통과했다. 관중들도 모두 일어나 反 파시즘 전쟁 승리를 위해 위대한 공헌을 한 소련 장교와 병사들을 향해 경의를 표했다.

10시 05분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러시아 국방장관이 리무진에 선 채 러시아 군대를 사열했다.

사열이 끝나자 러시아군 최고 통수권자인 푸틴이 강연대로 걸어 나가 약 10분간 연설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먼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 60여개 국가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으며, 전 인류의 80%가 피해를 입었다. 전쟁은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났다. 하지만 가장 잔혹했던 전쟁은 바로 소련 영토에서 일어났으며, 그칠 줄 모르던 파시즘의 행보는 바로 여기, 모스크바 교외에서 저지됐다. 3년 동안 소련 국민들은 적들의 공세를 막아냈으며 승리를 앞당겼다. 뒤이어 소련의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점령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에게 5월 9일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가장 신성한 날이 될 것이며, 이 날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고통이 교차하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제2막 : 참전 원로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다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전원이 기립한 가운데 군악대가 러시아 국가를 연주했고 동시에 10발의 축포가 울렸다.

소련국기를 든 사관생도들로 구성된 악단을 첫 번째 사열단으로 하는 분열식이 정식으로 시작됐다. 그 뒤를 러시아 국기를 손에 들고 전쟁 당시 입었던 붉은 군대 복장을 하고 머리에는 낡은 철모를 쓴 러시아 사병으로 구성된 제2사열단이 바짝 뒤따랐다. 그들은 공로와 명예를 상징하는 소련군 깃발과 레닌의 얼굴과 “소련”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붉은 깃발을 씩씩하게 받쳐 들고 귀빈석을 지나갔다. 현장에는 귀에 익은 카츄사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이어서 군견을 이끈 지뢰제거부대, 탱크부대, 해병대, 기마부대가 차례대로 붉은 광장을 통과해 사열을 받았다.

보병부대가 지나간 후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전체 사열식이 시작됐다. 2,600여 명의 참전용사들이 전쟁 당시 사용됐던 30대의 군용트럭을 타고 당시의 서열 단위로 나뉘어 붉은 광장을 통과했다.

이 때 전체 광장의 관중들도 모두 일어나 영웅들에게 저마다의 경의를 표했다. 소식에 따르면 사열을 받은 참전용사 이외에도 2,400여명의 참전용사들이 이번 성대한 경축활동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각국 지도자들도 환한 미소로 참전용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경의를 표했으며,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도 귀빈석의 뒤편에서 손을 흔들었다. 루카센가 벨로루시 대통령과 유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전용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제3막 : 현대병과를 사열하다

영광스러운 역사를 상징하는 사열식이 끝난 후 현대식 무기로 무장된 병과들도 사열을 받았다. 육군, 해군, 공군, 내무부대, 특수부대, 해병대와 공군병사 등 사열단이 큰 소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붉은 광장을 지나 모스크바 강변을 따라 각자의 집결장소로 돌아왔다.

현대식 부분 사열식에는 사관생도는 2,600여명, 그 밖에도 현역군인이 약 7,000명이 참가했다.

사열대의 행진과 함께 최첨단 공군 전투기 12대가 굉음소리를 내며 붉은 광장을 횡단했다.

끝인사 : 국가 지도자들은 애국열사에게 꽃을 헌화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11시 정각, 모든 사열식 행사가 모스크바 관악대의 “승리의 노래” 반주 속에 무사히 끝났다.

각국 지도자들은 귀빈석을 내려와 주코프 광장을 지나 앞쪽의 무명열사 묘지에 헌화했다.

11시 11분 한 경례를 하고 있는 전사를 선두로 대형 화환을 든 8명의 전사들이 각국 지도자들을 인솔하여 천천히 묘비를 향해 걸어갔다. 전사들은 화환을 내려놓고 양쪽 옆으로 비켜섰다. 각국 지도자들은 손에 든 두 송이 카네이션을 무

명 열사들의 묘 앞에 놓았다.

그 후 각국 지도자들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크렘린궁 연회에 참석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일부 러시아 참전용사 대표와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지도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발췌 : 2005년 5월 10일 東方早報)

2) 4국 연맹(四國聯盟)

보도내용 : “4국 연맹”, 선부른 도박 한판

일본, 인도, 독일과 브라질로 구성된 “4국 연맹”은 6일 안보리의 구성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결의초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 방안과 “4국 연맹”의 결의초안에 이견이 존재하는데다, “4국 연맹”이 아프리카의 국가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초안을 유엔 회의에 제출한 것은 “도박”이 아닐 수 없다.

마음의 집을 벗어던지고 카리브 국가의 지지를 얻다

유엔주재 일본 대표단은 유엔사무처에 유엔 공식 언어로 번역된 초안을 하루 빨리 회원국에게 나눠주길 바라며, “4국 연맹”은 다음 주쯤 이 초안에 대해 유엔 회의에서 토론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4국 연맹”이 초안을 제출한 당일, 15개 회원으로 구성된 카리브 공동체는 처음으로 “4국 연맹”초안에 대해 “조건부 지지”를 보냈다. 유엔 주재 바하마 대표는 카리브 국가 정상회담 마지막 날 “4국 연맹”초안 지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보리 구성원을 교대로 하여 카리브 국가와 같은 작은 국가들에게도 안보리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조건을 걸었다. 그는 또 카리브 각국 지도자들은 안보리가 앞으로 소외된 국가들과 개도국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리브 국가들 지지로 “4국 연맹”은 “마음의 집”을 털었다.

관건은 아프리카국가의 표발을 뚫는데 달렸다

신원을 밝히길 거부한 “4국 연맹”의 한 고위급 외교관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제출한 개혁 방안과 “4국 연맹”의 초안이 시간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면서 4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국가는 5일 안보리의 개혁에 관해 자신들의 방안을 제출했다. 유엔 개혁 결의초안은 191개 회원국 중 최소한 128개 국가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53개 회원국을 보유한 아프리카 연맹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분석가의 말에 따르면, 만약 아프리카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어떠한 초안도 유엔 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프리카 방안이 발표된 후, “4국 연맹”은 즉각 상세하게 분석하고 긴밀한 협상을 벌였다. 아프리카 방안과 “4국 연맹”의 초안은 비슷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4국이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를 얻는데 전력을 다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6일 “4국 연맹”은 지난 8일 일부 아프리카 연맹 회원국 외무장관을 초청해 개혁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입장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은 이번 “중요 회의”에 출석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주재 알제리아 대표는 “4국 연맹”과 아프리카 방안에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4국 연맹”이 현재 결의초안을 표결에 제출할 경우,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박 한판? 두 가지 방안의 차이

분석가는 아프리카 연맹과 “4국 연맹”의 개혁방안의 차이가 심해,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4국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 6석과 비상임 이사국 4석을 늘리면, 아프리카는 앞으로 새 상임 이사국 2석과 새 비상임 이사국 1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연맹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2석과 새 비상임 이사국 2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4국 방안에 따르면 새 상임 이사국은 15년간 거부권을 포기해야 하지만, 아프리카 연맹은 새 상임 이사국들도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4국 연맹”이 아프리카 연맹의 요구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의 비상임 이사국 자리를 늘린다면, 다른 지역들도 자리를 늘리겠다는 요구를 할 수 있어 협상은 더욱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AP 통신은 “4국 연맹”이 아프리카 국가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황급하게 결의초안을 유엔 회의에 제출하여 표결을 진행한 것은 “도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발췌 : 2005년 7월 7일 新華社)

3) 아이치 세계 박람회(愛知世博)

보도내용 : 아이치 세계 박람회, 모든 건축은 조립완구처럼 해체 가능

아이치 세계 박람회가 실현한 환경보호 이념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회의장은 기복이 있는 구릉지대이고, 아름다운 경관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는 121개 국가와 지역, 4개의 국제 전람관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자연의 지형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높고 낮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건축되어 있다.

완벽한 친환경을 추구하는 세계 박람회는 새로 길을 만들지 않고 각각의 전람관을 공중회랑, 즉 “글로벌 루프”로 연결했다. 이 “글로벌 루프”에 들어서면 각 나라의 전시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편, 세계 박람회에서는 짐통더위를 이기는 깜짝 “피서”법이 공개됐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에어컨이 필요 없었다. 세계 박람회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대지의 탑”은 높은 벽면에서 물을 천천히 흘러 내림으로써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냉각 효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또한 미끄러, 도시바관은 펌프로 물을 퍼 올려 16미터 높이의 지붕위로 끌어올린 후 전시관 앞쪽의 블라인드를 통해, 다시 4.5미터의 높이에서 물보라로 변해 떨어지게 되며, 이 때 실내에 서늘한 느낌을 주도록 건축되었다.

관계자는 기자에게 173헥타르의 박람회장내 “대지의 탑” 평면에 시멘트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시관과 시설은 말뚝을 박지 않고 전부 철강 구조물을 사용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또한 철강 구조물은 가능한 용접과 나사못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전통 목공 기법인 장부(樑頭 : 나무 못)방법을 응용하여 연결하였다. 그리고 세계 박람회가 끝나면 조립완구처럼 해체가 가능하며, 다시 다른 곳에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박람회가 끝나면 이곳은 모두 원상복귀 될 것이다.

환경보호 이념

만약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로봇이 이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제 오후 찾아간 도요타 전시관에서는 연주와 함께 정제된 춤을 선보이는 로봇 악대가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세계박람회에서 로봇이 맡은 역할은 연주자만은 아니었다. 베이비시터,

귀빈접대, 청결유지, 보안유지 등 로봇들이 맡는 역할은 다양했다. 첨단기술의 집합체 로봇은 이번 박람회에서 최고의 스타였다. 따라서 도요타와 히타치 등의 전시관에는 시종일관 밀려드는 관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구내에 마련된 교통수단들도 관객들에게 미래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주 회의장을 자동으로 오가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인 IMTS⁴⁾와 전기 자동차, 양쪽 대회장을 연결하는 연료전지 혼합형 엔진 버스와 정식으로 운행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일본관의 전기는 태양에너지 발전기와 연료전지 발전기를 이용했다.

아이치 세계 박람회에서 최첨단 과학기술 전시품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높이 10미터, 넓이 5미터의 2,050인치 이음매가 없는 초특급 스크린과 미래에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인용 미래형 자동차인 “아이 유닛(I-unit)”도 있었다.

최첨단 과학기술

기자는 별생각 없이 “지구광장” 부근의 한 한국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앉자마자 곧 4명의 “요리사”가 냄비를 두드리면서 무대를 뛰어다니며, 훌륭하고 멋진 “난타 공연”을 펼쳤다. 한 차례의 신명나는 연주 속에서, 냄비와 그릇, 바가지들 모두가 악기로 변했고, 청소도구, 도마, 쓰레기통도 저마다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 냈다.

아이치 세계 박람회는 오락과 문화공간을 특별 설치했다. 여기에는 지구촌, 개구쟁이 보물섬, 휴양림 등의 휴식공간이 있다, 온 집안에서 나온 참가자들은 신명나는 분위기 속에서, 음식, 환경 등 각종문제의 관련지식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관람객들의 음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치 세계 박람회 구내에 특별 설치된 세계 미식 광장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식당을 구내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구내 세트

여행자들의 먹거리, 볼거리, 모두 세계 박람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다. 세계 박람회의 오락 장소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 중 식당가는 구내의 각 구석에 분산시켜 최대한 참관자들의 편의를 배려하여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 박람회 개관 첫날 4만 여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만약 1,500만의 예상 참관자수로 계산해본다면 이 숫자는 결코 당일 최고 인파가 아니다. 또한

4) IMTS : 지능형 멀티모드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Multimode Transit System)

일부 기업관과 인기 있는 나라들의 전시관 앞에는 끝이 안보일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적게는 삼십분 많게는 두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관자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떻게 하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아이치 세계 박람회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① 인터넷 예약을 통해, 전 세계 참관자들은 입장시간 및 인기 전람관의 참관시간, 매회 공연입장시간까지 예약 주문할 수 있다. 사전 예약자들은 그 때가 되면 편하게 입장할 수 있다.

② 관중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후, 입장권을 제시하면 전시관 2곳의 “비상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종합적으로 계획하는데 편리하고 줄을 서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③ 관계자들이 인기 전시관의 입구에서 지시 팻말을 들고 계속해서 관중이 기다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알려준다.

(발췌 : 2005년 3월 26일 新民晚報)

4) 중국관(中國館)

보도내용 : 세계 박람회 첫 날, 장사진을 이룬 중국관

일본 아이치 세계 박람회 개방 첫 날 중국관은 장사진을 이루었고, 아시아 최대의 전람관으로서 외관상으로도 특별히 시선을 끌었다. 중국관은 빨간색 나무기둥, 빨간색 문, 빨간색의 종으로 오려 접은 십이지신상으로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이는 또한 중국의 눈부신 발전을 상징하기도 한다.

중국관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했다. 또한 전람관은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담아 넓고 방대한 중국문화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벽면위의 용과 병마용의 조각상은 관중들을 사로잡았고, 벽면위에 걸린 활자 인쇄시설과 편종은 재미를 더했다. 관객들은 하나씩 두들겨 보면서 고대악기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돌출된 활자를 누르며 문자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이밖에도 아홉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나무 조각의 장식물 등, 정교하고 아름다운 예술은 관중들의 감탄을 자

아내기에 충분했다.

중국 민요는 중국 민족음악을 전공한 여성 연주자 12명으로 구성된 “여자 12 악 방”(女子十二樂坊)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은 후 더욱 사랑을 받았다. 더 많은 관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덟 명의 중국 소녀들이 현장에서 중국민족의 악기를 연주하였다. 이날도 양금, 비파, 얼후, 피리, 소, 쟁 등을 든 8명의 중국 아가씨들이 열정적이고 리드미컬한 연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 모든 것들은 “민족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또한 중국의 우수한 민족문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예술적 매력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관은 중국의 현대문명도 전시했다. 들어서자마자 유리를 밟으면 유리 아래로 많은 물고기들이 노니는 화면이 펼쳐진다. 활발하고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발을 떼지 못한다. 사람들은 “디지털의 화려한 색채”장치 앞에 서서 맞은편의 스크린 수중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다. 많은 관중들은 이곳에서 “수중에 비친”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줄을 서기도 했다. 또한 전시장에 진열된 첨단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미래형 개념의 구형 스크린에서는 선저우(神舟)5호 발사 화면이 비춰졌고, 웅대한 기세는 현대중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한껏 과시했다. 2층의 11개의 스크린은 전자책처럼, 중국어, 영어, 일어 등 3개 국어로 훌륭하고 다채로운 각각의 성(省)과 시(市)의 모습들을 보여줬다. 중국관 관계자는 중국관은 각 성(省)과 시(市)의 특징을 보여주고, 더 많은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장이라고 말했다.

중국관에는 개장 첫날 1만 4천여 명이 몰려들었고, 일본 최대 방송국인 NHK는 오전에 세 차례나 현장 생방송을 하였으며, 보도에 따르면 NHK 방송국이 오늘 현장 생방송 한 외국 전시관은 중국관과 미국관뿐이었다고 전했다. 그중에서도 중국관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일본 관중들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했다. 미국관 관장도 중국관에 대해 칭찬을 했으며, 중국관을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운치 있는 공간”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또 미국의 14개 주의 주지사가 세계 박람회를 참관할 때 반드시 중국관을 참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췌: 2005년 3월 26일 新華社)

5) 상임 이사국 가입 (入常)

보도내용 : 일본은 왜 “상임 이사국” 가입에 안간힘을 쓰는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데 더 많은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은 16일부터 세계 각지에 있는 대사 116명을 소집, 도쿄에서 3일간 회의를 갖고 일본의 “상임 이사국 가입”이라는 대계를 함께 논의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유엔 안보리에 상임이사국 확대를 촉구하고, “상임이사국” 가입에 대한 일본의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다시금 되새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대사회의는 매년 한 번 지역별로 열리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올해는 “상임이사국 진출”을 달성하고, 외무성 전체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은 이례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있는 대사들을 전부 본국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작전회의”까지 열게 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원래 소극적 태도를 가진 국가들을 성공적으로 설득시켜 일본을 지지하도록 하는 대사들의 “표 끌어 모으기”경험은 이번 회의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은 16일 회의 발언에서 “유엔 안보리 회의개혁과 일본의 상임 이사국 가입목표 달성은 고이즈미 내각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지하는 국가도 있지만 반대하는 국가도 있다. 하지만 절대 다수 국가들의 태도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각 대사들은 일본 전쟁 종결 60년이라는 것을 계기로 평화국가를 건립한다는 자신감과 자랑스러움을 내세움으로써, 각국의 중요인물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대사들에게 주재국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해줄 것을 호소하였으며, 각국 정부가 일본의 상임 이사국 가입에 대한 지지 촉진에 힘써주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이 이번 전세계 대사회의 소집에 대해 자신만만해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많은 외무성 관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전세계 일본 대사들이 한꺼번에 “자리이탈”을 하는 것은 외무성 설립 이래 이례적인 사태이다. 모두가 촌각을 다투며 표 끌어들이기에 여념이 없는 때에, 겨우 공동 상의를 하기 위해 한꺼번에 일본 대사들을 소환한 것은 일본이 “상임 이사국” 가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췌 2005년 2월 17일 文匯報)

6) 허리케인 “카트리나”(卡特里娜颶風)

보도내용 : 8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리케인“카트리나”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관계자는 15일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사망자수가 하루 전보다 84명 늘어난 558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사망자수는 이미 792명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도 미시시피주의 사망자수는 218명, 앨라배마주 2명, 플로리다주 14명으로 조사됐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는 “카트리나”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레이내긴 뉴올리언스시 시장은 이번 달 초, “카트리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신속한 구조작업으로 이 시 곳곳에 고였던 물이 빠져나가면서, 구조팀은 최종적인 사망자수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8월 25일 플로리다를 습격했고, 뒤이어 29일 미국 멕시코만 연해지역에 상륙하여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왔으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으로 기록됐다.

(발췌 : 2005년 9월 16일 新華社)

7) 런던 폭탄테러 사건(倫敦爆炸)

보도내용 : 런던 경찰, 지하철 3곳의 폭발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영국 경찰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 지하철 세 곳에서 발생한 폭파사건은 “거의 동시에 폭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동시 폭발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브라이언 패딕 런던 경찰청장, 앤디 트로터 부청장과 지하철 관계자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런던 지하철 세 곳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거의 10초 간격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간까지도 계획적인 계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패딕 청장은 “현재로선 아무것도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세 사람이 폭발물을 나누어 지하철에 탄 후 정해진 시간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동차 폭발은 “아마도” 자살 폭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딕 청장은 킹스크로스 지하철 폭발이 심각하여, 아직 정리 작업을 하지도 못

한 채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트로터 부청장은 심각한 폭파를 당한 2층 버스 폭발현장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됐으며, 전문가들은 폭파를 당한 버리지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로터 부청장은 런던의 대다수 대중교통 노선이 이미 정상화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런던 서북쪽에서 약 100킬로미터 떨어진 실버스톤 도로에서는 현재 F1자동차 대회가 열리고 있다. 트로터 부청장은 오늘 오후 런던 시내 폭발지역에 구조센터를 설치하고 실종된 가족들과 친척들의 문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영국 경찰은 이번 런던 연쇄폭발 사건으로 사망자 49명, 실종자 25명이 발생했으며, 확인된 사망자와 실종자 이외에도 백여 명이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경상을 입은 600여 명은 바로 귀가조치됐다.

(발췌 : 2005년 7월 9일 新華社)

8) 색깔혁명(顏色革命)

우수칼럼 : “색깔혁명”의 배경을 파헤치다

지난주 초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루지야의 수도 트빌리시 자유 광장에서 가진 공개연설에서 “장미혁명”을 극찬하는 한편, 그루지야 국민들에게 미국과 함께 “민주”와 “자유”를 책임져나가자고 호소했다. 그 후 해외 인사들은 벨로루시 “색깔혁명”을 지지하기 위해 5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보내왔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색깔혁명”은 이렇게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색깔혁명”의 발생 배경은 무엇인가?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하였나? 미국은 왜 사력을 다해 “색깔혁명”을 추진하나?

옛 소련 지역에서 다시금 “색깔혁명” 불이 이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배경들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화 속에서 옛 소련 각국의 “민주화” 진행과정은 “색깔혁명”의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고 있다. 둘째, 각국의 빈곤, 양극화, 부정부패,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는 “색깔혁명”의 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다. 셋째, 역사·문화적인 갈등이 빚어낸 지역 간 또는 민족 간의 대립은 “색깔혁명”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다. 넷째, 옛 소련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민주화” 개혁바람은 “색깔혁명”의 외부적 배경이 되고 있다. 위의 요소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면서 “색깔혁명” 바람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발췌 : 2005년 5월 17일 文匯報)

9) EU 헌장(歐憲)

출처 : 프랑스, 《EU헌법조약》 부결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유럽대륙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29일 프랑스 국민투표 결과 《EU헌법조약》(약칭 EU헌법)이 부결된 것이다.

파리 현지시간으로 지난 29일 밤 10시(베이징시간 30일 새벽4시), EU헌법 비준을 위한 프랑스 국민투표가 모두 마감됐다. 프랑스의 각 여론조사기관은 잇달아 투표소 앞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결과 각각의 조사결과가 모두 부결로 나타났다.

(발췌 : 2005년 5월 30일 新華社)

10)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

보도내용 : 중국 외교이론의 주축, “조화로운 세계”

조화로운 세계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올 9월 유엔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것으로, “포용정신으로 함께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하자”라는 내용을 취지로 하고 있다. 이 이론은 이후 APEC과 G20재무장관회의 등에서도 다시금 거론됐었다.

이처럼 조화로운 세계는 이미 중국 외교이론의 주축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때 중국의 “삼개세계⁵⁾(三個世界)”이론이 전 세계의 이목을 한 몸에 받았던 것처럼, 조화로운 세계 역시 참신한 이론으로 전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발췌 : 2005년 12월 23일 新民周刊)

제3장 : 부동산부문 유행어

5) 3개 세계 : 초강대국, 선진국, 개발도상국.

서두 : “부동산시장 조정”이 대세다

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분양주택 가격을 잠재우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일련의 “부동산시장 조정” 정책을 내놓았다. ② “국8조”, “부동산대출 신정책”, “일반주택 기준”, “특가 주택”, “집값 안정” 등 일련의 “종합 대책”들이 부동산 경기 과열 현상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다. ③ 그러나 개발업체들은 “부동산 원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집값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분양가를 조작하고 있다. ④ “개인출자 공동주택 건설”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민들의 주거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부문 유행어 : 종합 대책(組合拳), 집값 안정(穩定房價), 부동산시장 조정(房地產市場調控), 집값 부풀리기(哄抬房價), 특가 주택(特價房), 개인출자 공동주택 건설(個人集資建房), 일반 주택 기준(普通住房標準), 국8조(國8條), 부동산 대출 신정책(房貸新政), 부동산 원가(房貸成本).

1) “종합 대책”(組合拳)

보도내용 : 부동산대출 신정책 시작에 불과, “종합 대책” 곧 등장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국민 생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상업은행의 개인주택 신용대출 정책과 지급준비금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하고, 부동산 가격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런 부동산대출 신정책은 거시적 조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상 현상을 볼 때, 주택가격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분양주택 공급구조 개선

[종합 대책]은 비주택과 고가 분양주택 건설 규제를 토대로 일반 분양주택, 서민용 주택, 저가 임대주택 공급과 시장공급 비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관련 기관은 일반 분양주택 및 서민용 분양주택 건설규모를 늘려나가기로 하고, 저가 임대주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수요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 공급구조 조정

[종합 대책]은 일반 분양주택과 서민용 주택 토지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유휴지를 정리해 토지공급 구조를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건설부는 허가증 관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건설속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 사재기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자원관리부는 건설용 용지를 지속적으로 “입찰, 경매, 공시”하는 것을 통해 토지가격 시장형성기제와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공개·공평·공정한 토지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유휴지를 정리하는 한편, 현재 개발 가능한 건설 용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 토지실제 공급총량과 이용효율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투기성 수요 억제

[종합 대책]에서는 부동산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신용대출 구조를 조정하기로 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월 17일부터 상업은행의 개인주택 신용대출 정책을 조정해, 현행 개인주택 신용대출금 우대금리를 동기간 대출금 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하한선을 관리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금리 하한수준을 상응기한의 대출금 기준금리의 0.9배로 하고, 부동산 가격 거품이 심한 도시와 지역의 개인주택대출금 첫 할부금 최저비율을 현행의 20%에서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발췌 : 2005년 4월 5일 新華社)

2) 집값 안정(穩定房價)

보도내용 : 건설부, 집값안정을 위한 6개 계획 돌입

부동산시장을 조정하고 주택가격 안정화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건설부는 지난 27일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올 6월말까지 직할시(直轄市), 계획단열시⁶⁾(計劃單列市), 성급 도시 및 분양가가 과열된 중점도시는 인터넷상에서 분양주택의 구매협약, 혹은 매매계약에 대해 알려야 한다. 또한 기타 해당 시(市)와 현(縣) 역시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둘째, 각 지역은 우대혜택을 받는 일반주택의 기준을 마련해, 올 5월 31일전까지 공포·집행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 기준을 발표하지 않은 지역은 즉시 《국무

6)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 성 수준의 경제관리 권한을 인정받는 도시)

원 관공실이 건설부 등의 부문에 전달한 주택가격 안정화사업에 관한 통지》에서 규정한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부동산 과열현상을 막아야 한다.

셋째, 각 시(市)와 현(縣) 관할부서는 올해 안으로 최저소득층의 주택난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넷째, 6월말까지 40개 중대형도시를 선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1단계 검수 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섯째, 건설부는 2005년 7월부터 40개 중대형도시에 대한 부동산 정보시스템의 주요 데이터 지표와 시장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여섯째, 국무원의 조치에 따라, 건설부 등 7개 부문은 연합조사팀을 구성하여, 일부 성과 시에 대해 거시적 조정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주택가격 안정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별로 검사해나간다.

(발취 : 2005년 5월 28일 新華社)

3) 부동산시장 조정(房地產市場調控)

보도내용 : 부동산시장 조정에 성적표를 제출한다.

광범위하고 복잡다단한 부동산시장의 특성 때문에 새로운 거시적 조정을 해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돌출하고 있다.

중국 건설부 정책연구센터의 전문가는 이번 조정은 경제적 수단과 법률적 수단은 물론, 필요시에는 행정적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이로써 시장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보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 수단은 세금수단을 중심으로 시장 공급관계에 맞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종합적인 관리로 시장기제가 자체적인 조절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공급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수요를 확실히 장악해나가고, 수요조정에 있어서는 세금을 강화함으로써 투기 등 비이성적인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적 수단은 부동산 시장발전에 따른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번

거시적 조정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가령 국무원은 《도시 부동산 관리법》에 의거, 미준공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를 금지하는 한편, 시장매매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발췌 : 2005년 6월 2일 新華社)

4) 집값 부풀리기(哄擡房價)

보도내용 : 상하이, 부동산 투기 잡는다

부동산 업체의 가격행위를 규범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정상적인 가격질서를 보호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양질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관리기관은 시정부의 분양주택 매매 관리감독 및 시장정비 강화 원칙에 입각, 오늘부터 전국의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와 집값 부풀리기 등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 14가지 위법행위

- ① 분양주택 판매 시 주택별 상이한 가격, 기준가격 및 가격조절폭 등 표시가격이 규정에 맞지 않게 책정된 경우.
- ② 분양주택을 판매하거나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책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 ③ 경영자가 표시가격 이외의 할증가격(추가가격)이나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
- ④ 경영자가 허위 분양상황표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택가격을 조작한 경우.
- ⑤ 경영자가 판매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등의 허위계약으로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
- ⑥ 경영자가 분양주택 판매나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전에 협의된 가격을 사후 불이행하거나 혹은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 ⑦ 경영자가 분양주택의 판매상황이나 가격을 허위 제공해 소비자의 구매경쟁을

부추기는 경우.

⑧ 경영자가 소비자와 체결한 주택 판매계약서에 표시된 면적과 실제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

⑨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공용면적을 과다 부가시키거나, 혹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용면적을 부담시킬 경우.

⑩ 경영자가 허위성이 있거나 오해소지가 있는 언어, 문자, 그림, 가격단위 등으로 가격정보를 광고함으로써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한 경우.

⑪ 경영자가 정부의 지도가격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비용항목을 개설하거나 규정된 변동 폭을 초과해 중개비용을 받은 경우.

⑫ 경영자가 분양주택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강제 또는 변형된 강제 서비스로 부당한 이익을 갈취한 경우.

⑬ 부동산 업체가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액을 챙기고, 구매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⑭ 부동산 개발업체와 중개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가격을 올린 경우.

(발췌 : 2005년 4월 2일 新民晚報)

5) 특가 주택(特價房)

보도내용 : 충칭시 춘계 부동산 교역회, 특가 부동산 판매

충칭(重慶)시 국토 부동산 관리국은 어제 춘계 부동산 교역회에서 내놓은 특가 주택 27채가 확정됐으며, 구체적인 판매방안도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특가 주택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과 오후에 판매된다. 매매 전 구매자는 필요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택구매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교역회 기간에는 특가 주택 청약순서를 양도 할 수 없으며, 주택 당첨은 공개 추첨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개발업체는 분양센터에서 제시한 가격과 판매원가가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할인가는 기업의 최저 판매우대 가격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출처 2005년 4월 2일 新民晚報)

6) 개인 출자 공동주택건설(個人集資建房)

보도내용 : 개인 출자 공동주택건설의 “신호”

지난세기 20년대 말 미국의 희극배우 에디칸터는 일찍이 블랙조크 대사로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경고했었다. 호텔 종업원 배역을 맡았던 그는 투숙객에게 “아저씨, 그저 잠이나 한숨 붙일 수 있는 방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뛰어내리고 싶은 만큼의 아주 비싼 방을 찾으십니까?”라고 물었었다. 요즘 베이징, 상하이, 난징, 청두 등지의 고학력 직장인들이 이 대사를 역으로 이용해 “아저씨, 뛰어내리고 싶은 만큼의 비싼 가격의 집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살 집을 지으시겠습니까?”라고 묻곤 한다.

하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황포”를 참아가며 이삼십년간 부동산 대출금을 갚느니, 차라리 능력에 맞게 시장가격보다 40~5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최근 들어 많은 젊은층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회사설립, 자금출자, 부지물색 등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결과가 어찌되었든,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돼버린 개인 출자 공동주택건설은 “상징적 의미”가 훨씬 크다. 사회분업이 이처럼 세분화된 오늘날 “옛날로 되돌아가는” “자급자족식” 소비방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시장의 무질서는 누가 종결할 것인가? 또한 국민들의 “주거의 권리”라는 조화로운 사회의 기초를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가?

(발췌 : 2005년 3월 1일 新華社)

7) 일반주택 기준(普通住房標準)

우수칼럼 : 6월 1일 전, 일반 주택 기준 발표

건설부는 어제 “주택건설 전보[2005] 35호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6월 1일 이후, 개인이 구매기간이 2년(2년 포함)을 초과하고, 해당지역의 주택기준에 부합한 주택을 판매할 경우, 영업세를 면제해주고, 5월 31일까지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특혜를 받는 일반주택 기준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통지에 따르면 6월 1일 이후 개인의 구매기간이 2년(2년 포함)을 초과하고, 현지 일반주택 기준에 부합한 주택을 팔 경우, 입주주택의 위치, 용적률, 주택면적, 매매가등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지방 세무서에 신청하고 영업세 면제 수속을 해야 한다.

또한 만약 구매기간이 2년(2년 포함)을 초과하였지만, 일반주택이라는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비일반주택의 관련정책에 따라 영업세를 일률적으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췌 : 2005년 3월 23일 新華社)

8) 국8조(國八條)

보도내용 : 국무원 상무 회의, 부동산 시장조정 조치 강화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27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추세를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시조정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또 현재 부동산 시장 견인과 조정 강화를 위한 다음의 8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① 조정을 강화하고 주택분양 구조를 개선한다. 또한 각 지역은 2년 내에 일반 분양주택과 서민용 주택건설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 계획과 진행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② 토지공급 조정과 토지 관리를 강화한다. 각 지역은 토지이용에 관한 총체적 계획을 엄격히 실시하는 전제하에, 거주지의 토지가격과 입주가격이 과열 상승된 도시에 대해서는 중저가의 일반 분양주택과 서민용 주택건설 용지 공급량을 적절하게 늘리는 한편, 법에 따라 부동산 투자를 철저히 억제한다.

③ 일반 분양주택과 서민용 주택가격 조정을 강화하여, 중저가, 중소형 주택공급을 늘리고, 서민용 주택가격은 정부 지도가격을 엄격히 실시해나갈 것이다.

④ 도시 저가임대주택 제도를 완비하고, 저소득층의 주택수요를 보장하는 한편, 저가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성(省)·진(鎮)의 저가임대주택제도 건설 상황을 성(省)급 정부가 시(市), 구(區), 현(縣)정부의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⑤ 세금정책 등의 경제적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고, 특히 부동산 매매 행위에 대한 조정강도를 강화한다.

⑥ 금융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상업은행은 부동산 대출금과 개인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출금의 위험부담을 줄인다.

⑦ 부동산시장 질서를 정돈·규범화 하고 법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한다.

⑧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보 공개, 여론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투명도를 높인다.

(발췌 : 2005년 4월 27일 新華社)

9) 부동산 대출 신정책(房貸新政)

보도내용 : 4대 국유 상업은행, 부동산 대출 신정책 전면 시행

인민은행의 상업은행 주택신용대출 조정정책과 금융기구의 지급준비금 이자율의 하향조정에 관한 통지에 따라, 중국은행을 포함한 4대 국유상업은행은 3월 17일부터 새로운 개인주택 신용대출정책을 전면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췌 : 2005년 3월 23일 新華社)

10) 부동산 원가(房價成本)

우수칼럼 : 부동산 원가의 “수수께끼”를 파헤치다

부동산만큼 불투명한 업종도 없을 것 같다. “25%도 안 되는 이윤 때문에 개발업자들의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단 몇 번의 분양으로 억만장자가 탄생하고 부동산 폭리를 통해 황금을 긁어모은다.” 등……. 중국의 부동산 업계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요즘, 그 이익이 도대체 얼마인지 미스터리가 된 지 이미 오래다. 개발업체들이야 숨겨진 내막을 알고 있겠지만 구매자는 부동산 가격이 과잉 책정돼도 증명할 방법조차 없다……. 이 모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정확한 데이터로 집값의 실제원가를 표기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도시에 비해 푸저우(福州)시의 부동산 가격은 중위권에 속한다. 내가 취재한 분양단지도 평균가나 개발수준으로는 이 시에서 중상위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곳이었다. 하지만 “명세서”에 나온 개발원가만 봐도 이 분양단지는 이윤율이 약 60.2%로 지나치게 높은 편인데다, 집값도 실제원가를 훨씬 벗어나 있었다. 게다가 개발업체들도 얼토당토 않는 구실을 들어가며 걸핏하면 높은 개발 원가로 집값을 올려놓고 있었다.

① 정상적인 집값은 원가에 합리적 이윤을 더한 것이다. 분양주택의 관련비용 등 원가에 대해 자세히 계산 한 결과, 한 분양단지의 1평방미터당 실제원가는 이삼천 위안이었다. 하지만 어떤 가구의 평균판매가격은 사오천 위안이었으며, 이윤율이 90%에 달하는 가구도 있었다.

② 언뜻 보기에 수익률이 60%라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택은 보통상품과는 다르다. 주택의 경우 가격총액이 높다는 것은 개발업체들이 거래의 이윤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저우시에 위치한 이 분양단지의 경우, 100평방미터 집 한 채의 가격은 39만 위안이었다. 이익률이 6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발업체들은 m²당 1,466위안을, 집 한 채당 14만 6천 6백 위안을 벌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식이라면 전체 건축면적이 48만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분양단지의 경우 7억여 위안을 쉽게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

③ “명세서”상의 토지가격(양도하겠다고 공고된 토지)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면 개발업체들이 주장하는 “토지가격 결정론”은 말이 안 된다. 이 분양단지의 경우, 토지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17.5%에 불과했다. 푸저우시 물가관리 부문에 따르면 이 시 분양주택의 사회평균원가에 따른 토지가격은 집값의 20% 정도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집값이 정말 개발업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급과 수요로서 결정되고 있는 것일까? 취재를 하는 동안 일부 개발업체들은 “허위원가”, “허위수요”, “기대가치”, “설계 컨셉” 등으로 비싼 집값을 교묘히 포장하고 있었다. 수식어도 다양하다. 알짜 택지, 선진국 형 아이디어 도입, 친환경 주택, 친환경 인테리어, 학군밀집지역……. 주하이(珠海)에 있는 모 단지는 외곽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체들이 기업의 브랜드 효과와 계획 중인 해상다리 건설이후의 편리성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바람에, 집값이 평당 5,900위안까지 뛰어올랐다. 이렇게 교묘한 조작으로 가격은 쉴 새 없이 부풀려지고 최종 판매가격이 실제원가에서 멀리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개발업체들이 폭리를 챙기는 비법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

(발취 : 2005년 8월 29일 新華社)

제4장 : 자동차부문 유행어

서두 : 세계 석유파동, 소형자동차 위풍당당

① 2005년 말 관련정책 출범과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됐던 “소형 차량 제한”이 한풀 꺾이면서, “소배기량 자동차”가 마침내 봄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② 시민들도 “경제형 자동차”와 “최적 배기량” 자동차에 대해 차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③ 2005년 “혼합형 엔진자동차”가 출시된 후, 일 년 동안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는 가장 주목을 받았다. ④ 이 두 가지는 중국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하는 “미래형 자동차”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⑤ 새롭게 선보인 “국내 브랜드”가 올해 상하이 자동차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다.

자동차부문 유행어 : 소배기량 자동차(小排量汽車), 혼합형 엔진자동차(混合動力車),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普銳斯), 미래형 자동차(新能源汽車), 경제형 자동차(經濟型車), 소형 차량 제한(限小), 국내 브랜드(自主品牌), OBD 장치, 최적배기량(黃金排量), 자동차 과잉생산(汽車產能過剩).

1) 소배기량 자동차(小排量汽車)

보도내용 : 환경보호 총 관리국 “소배기량 자동차” 규제 완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개념이 각광받음에 따라, “소배기량 자동차 제한”에 대한 화제 역시 전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관련화제를 가지고 국가 환경관리국 과학기술 표준사 책임자인 자오잉민(趙英敏)을 인터뷰했다.

소배기량 자동차의 최대 장점은 에너지 절약이다. 그는 “소배기량 자동차”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라며, “소배기량 자동차”는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소형 차량 제한”이 시행되자, 시민들은 1.0ℓ 이하 배기량 자동차를 “소배기량 자동차”

라고 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소비기량 자동차는 100km 당 연비가 4~6ℓ 정도이지만, 1.6ℓ 급 이상은 기본적인 용도는 비슷해도 100km 당 연비가 8~11ℓ에 이른다. 소비기량 자동차는 차체가 작고 중량도 가벼워 주행 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덜어준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같은 거리를 주행하더라도 매년 30~50%의 석유소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바꿔 말해 일반 자동차는 소비기량 자동차보다 배에 가까운 연료를 소모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소비기량 자동차는 차체가 작다는 장점 때문에 주차공간도 절약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소비기량”과 “저 오염”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오잉민은 소비기량 자동차는 에너지 절약과 배기량 감소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소비기량 자동차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저 오염 자동차는 아니라고 말했다.

가령 소비기량 자동차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채택된 기술수준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오염물 방출기가 될 것이 뻔하다. 환경보호 부서의 검사에 따르면 소비기량 저가자동차의 경우 가스배출 안정성과 내구성 기준초과 상태가 중·고가 자동차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자들이 원가를 무리하게 낮추려고 한 나머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시민들의 이익과 직결된 성능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연비 절감형 자동차 발전을 장려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안전성이 떨어지거나, 오염 가스를 심각하게 배출하거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등의 불량 자동차 생산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고성능, 저 오염, 저연비 소비기량 자동차 개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배기량”의 크기가 자동차의 품질, 기술 수준, 안전성, 실용성 및 배기기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배기량”으로 자동차의 모든 성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소비기량 자동차 역시 우수한 품질과 기술을 갖춘 자동차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앞 다투어 소형 또는 미니형 자동차를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들도 안정성과 쾌적성, 주행성능, 배기량 성능까지 다른 자동차와 똑같이 우수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비기량 자동차라고 해서 모두 ‘불량 자동차’는 아니다. 그런 오명을 벗고 이미지를 쇄신하려면, 소비자가 바라는 대로 오염도가 낮고 배기량이 적은 경제형 자동차 개발에 자동차 업계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소형 차량 제한”은 그리 과학적인 것이 못 된다. 중국의 자동차 품질과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형 차량 제한”이라는 정책도 언젠가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췌 : 2005년 9월 13일 新華社)

2) 혼합형 엔진자동차(混合動力汽車)

보도내용 : 중국 제1세대 혼합형 엔진자동차 검수 통과

최근 동펑띠엔둥(東風電動)사가 연구 개발한 동펑 혼합형 엔진버스가 최종 샘플 테스트를 통과, 중국의 제1세대 혼합형 엔진자동차의 역사를 열었다.

동펑사 관련 책임자는 이 버스는 당분간 동펑 양즈장자동차(東風揚子江汽車(武漢))에서 소규모로 생산을 할 것이며, “11.5”기간에 완전히 상품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2년 동안 동펑 자동차는 1억 2천만 위안을 투입해 생산기지의 인프라를 건설할 것이며, 현재 이미 생산준비와 시장도입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 사의 혼합형 엔진자동차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에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책임자는 상품 기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면 동펑 혼합형 엔진자동차는 동펑 그룹의 적극적인 지지아래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췌 : 2005년 7월 29일 新華社)

3)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普銳斯)

보도내용 :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의 상징적 의미

혹한이 몰아치는 겨울, 처음으로 중국에 판매되는 혼합형 엔진자동차가 장춘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욕 원유가격이 70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터라 이 소식에 더욱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배기량이 1.5ℓ 인 프리우스는 지에다보다 겨우 3센티미터 가량 길지만, 판매가는 지에다의 세배여서, 가격 면에서는 동급 소형 자동차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또한 현재 보유량이 가장 많다는 미국에서도 동급 휘발유 자동차보다 20%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역대 최고의 혼합형 엔진자동차로 불리는 프리우스는 이미 50만대가 팔려나갔

다. 미국에서는 프리우스 자동차가 하나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일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혼합형 엔진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중국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프리우스의 연료절감 효과이다. 즉 도심운행일 경우, 프리우스는 보통 휘발유차량에 비해 50%정도의 기름을 절약할 수 있다.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수소엔진 방안과 비교했을 때, 혼합형 엔진자동차가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 건 사실이지만, 기존의 자동차 사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비평도 제각각이며, 단지 기술면에서 조금 앞섰을 뿐, 가격도 비싸고 유지보수비마저 높기 때문이다.

(발췌 : 2005년 12월 21일 北京青年報)

4) 미래형 자동차(新能源汽車)

보도내용 : 상하이, 미래형 자동차 산업화 가속

상하이 미래형 자동차의 산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향후 몇 년 안에 상하이 시민들은 다양한 “가스(기체) 자동차”를 접하게 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는 현재 주요 대체 에너지와 혼합형 엔진, 수소연료전지 엔진 등으로 구성된 미래형 자동차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자원개발로 에너지 다원화를 실현하고, 배기량 축소와 수소에너지 자동차로 전기 자동차의 꿈을 실현 할 것이다.

상하이자동차(上汽集團, SAIC)를 중심으로 상하이 자오통대학(上海交通大學), 퉁지대학(同濟大學) 등지에서 우수인재를 발굴한 결과, 미래형 자동차 개발능력은 이미 “다륜구동”단계에 접어들었다. 상하이에서는 예전부터 세 종류의 “가스 자동차”가 각종 도로를 누비고 있었다. 이는 오직 기름만 먹고 가스를 소화해내지 못하던 전통적인 구조를 바꿔낸 것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액화석유가스(LPG) 단일/이중 연료 자동차는 이미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산타나 3000을 비롯한 액화석유가스 택시는 만 대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 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도시 버스도 운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가스충전소도 80여 곳이나 마련되었다. 또한 압축천연가스 겸용 자동차의 대량생산체제도 이미 갖춰져 있어서, 산타

나 B2를 비롯한 “가스 자동차”가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가스 자동차”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미 운행되고 있는 “가스 자동차”를 제외하고도 연구개발에 성공한 네 종류의 미래형 자동차는 아직 실용화되지는 못했지만, 에너지 사용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한편, 수소에너지가 주요 연료인 차세대 연료전지 자동차 “슈퍼 2호”와 연구 제작에 성공한 제3세대 연료전지 자동차 “슈퍼 3호”도 이미 시범 운행되고 있다.

버스의 하나인 “선신동 1호(申新動1號)”도 혼합형 엔진버스이며, 산학(産學)의 공동 연구로 이러한 환경보호형 혼합형 엔진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근 새롭게 선보여진 미래형 자동차는 상하이 자동차연구원과 상하이 자오퉁대학을 중심으로 상하이 자오화(上海焦化), 상하이 디젤(上海柴油), 상하이 선아오(上海申沃) 등과 공동 개발로 만들어진 중국의 첫 번째 에틸렌 클리콜 도시 교통버스이다.

(발췌 : 2005년 8월 27일 新民晚報)

5) 경제형 자동차(經濟汽車)

보도내용 : 발개위, 경제형 차량 배기량 1.4ℓ 이하로 규정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관계자는 7일 중국은 빠른 시일 내에 경제형 자동차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즈(劉治) 발개위 산업정책사 사장은 최근 열린 “제6회 중국, 아시아 청정연료 국제세미나”에서 현재 발개위에서는 경제형 자동차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구상 중이며, 이로써 중국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소비의 조화로운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사장은 또 이번에 선보일 정책에서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형 소비기량 자동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형 자동차는 단순한 소비기량 차량이 아니라 다음의 요구사항도 만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소비기량과 에너지 절약, 둘째, 기술과 통과성이 뛰어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고, 환경 보호기능이 좋아야 한다. 셋째, 사이즈가 작아 도로와 주차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일반 시민들의 구매력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

발개위가 제시한 경제형 자동차에 대한 기준은 엔진배기량은 1.4ℓ, 차체 외곽 길이가 4미터 이하라야 한다. 또한 엔진파워는 45kW/ℓ 이상이어야 하며, 석유소비 기준치와 환경보호 기준 및 안전 기준치도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발췌 : 2005년 11월 7일 新華每日電訊)

6) “소형 차량 제한”(限小)

보도내용 : 상하이시, 도로망 구조개선에 따른 “소형 차량 제한”정책 완화

자오양(焦揚) 상하이시 대변인은 어제 현재 상하이시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로 소비기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정책은 도로망 구조개선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될 것이다. 시정부는 이에 따르는 고성능, 저오염의 소비기량 자동차 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현 정책에 의거, 상하이 공안관리 부서는 배기량 1300cc이하의 차량과 차체 높이가 1.5m이상의 소형 봉고차에 대해 고가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내부 순환 도로는 07:00~21:00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200cc이하의 소형 버스는 07:00~20:00시까지 고가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법정 공휴일 제외).

현재 상하이시의 도로상황을 본다면, 단번에 모든 소비기량 차량에 대한 금지령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상하이시 경제위원회 저우민하오(周敏浩) 주임보조는 어제, 상하이시가 일부 소비기량 자동차의 고가도로 진입을 제한한 것은 지나친 정체로 고가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오 대변인은 부족한 도로면적으로 인해 심각한 정체가 발생, 불가피하게 일부 차량에 대해 시간대와 지역별로 운행을 제한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도로 혼잡 상황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통행 금지된 소형 봉고차는 외형이 낡고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선진국들이 장려하고 있는 저 오염, 저 에너지, 고성능 차량과 비교해 볼 때, 본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또한 상당수의 소형 봉고차들이 좌석을 떼어내어 승객과 화물을 같이 싣고 있는 데다, 속도가 느리고 엔진파워 기능이 떨어져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게다가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다른 차량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시간·지역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고가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통행에도 도움이 된다.

자오 대변인은 도로망 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 제한정책도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정부는 고성능, 저오염의 소배기량 자동차 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료소비와 오염도가 높은 구형 자동차의 퇴출을 가속화 할 것이고 여기에 당정기관의 차량과 대중교통 및 교통운수업체가 우선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상하이에서 제조되는 자동차의 가스 배출량은 모두 에너지 기준치에 부합되고 있다.

(발췌 : 2005년 9월 1일 東方早報)

7) 국내 브랜드(自主品牌)

보도내용 : 중국 자동차 355개 중, 70%가 국내브랜드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장루이(蔣雷) 상무 부이사장은 지난 4월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물차량, 버스, 승용차 등을 비롯해 현재 중국 내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는 355개이며, 이 중에서 국내 브랜드는 69%, 해외브랜드는 3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용차의 경우, 100개 브랜드 중에서 국내 브랜드는 겨우 37개에 불과했다.

장 부이사장은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1회 상하이 국제자동차 산업박람회(상하이 자동차쇼) 기자회견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다”며 2004년에는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이 각각 500만대를 넘어서 세계 제4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제3대 자동차 시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몇 십년간 다량의 국산 브랜드가 쏟아져 나왔으며, 특히 화물자동차와 버스의 경우 이미 탄탄한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브랜드는 97개 중 90%가, 버스 브랜드는 158개 중 76%가 국내 브랜드일 정도이다.

그는 또 현재 국산 승용차의 대다수가 해외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승용차 분야의 브랜드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국산 승용차의 국내 브랜드 비율을 높이고, 시장규모는 물론 국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국산 승용차를 만들어낼 것이다.

한 전문가는 중국에는 자동차 브랜드가 200여개나 있지만 명품 수준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다수가 규모가 작고 기술수준도 떨어져 지명도가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 중 합자기업이 생산한 해외 브랜드는 전체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브랜드는 지리(吉利), 치루이(奇瑞), 하페이(哈飛) 등 소비기량 경제형 승용차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발췌 : 2005년 4월 11일 新華社)

8) OBD 장치(On Board Diagnostic)

보도내용 : 베이징, 자동차의 OBD 장치 장착 의무화

내년부터 중국에서는 차를 살 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즉, 國III(유럽 배기가스 배출기준 환경기준인 'EURO III'에 상응하는 '국가 3단계 배출기준')을 따르지만 OBD⁷⁾ 장치가 없는 자동차나, 國III를 적용하고 OBD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다. OBD 장치는 자동차에 설치하는 배기량 진단 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을 장착하면 제때에 고장과 오염기준초과를 알 수 있어, 운전자가 신속히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어제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이 발표한 관련표준에 따르면 2006년 12월 1일부터 베이징에서는 OBD 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신차는 판매가 중지된다. 하지만 과도기간인 올해 12월 30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는 國III기준에 따르나 OBD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2월 1일 이후부터는 오직 OBD 장치를 장착한 國III 기준 자동차만을 구입할 수 있다.

내년 12월 1일까지가 OBD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최종기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전에 이미 OBD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구입한 시민들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다시 OBD 장치를 장착할 필요도 없다.

(발췌 : 2005년 12월 27일 北京日報)

9) 최적 배기량(黃金排量)

보도내용 : “최적 배기량” 자가용은 1.6ℓ

7) OBD : 배출가스진단장치 : (On Board Diagnostics)

중국 국무원 연구발전센터의 최신 보고대로 유가가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요즘, 소배기량 자가용이 동종 승용차에 비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게다가 엔진과워도 뛰어나고 경제적인 배기량 1.6ℓ 인 자가용이 최적배기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1.6ℓ 인 배기량 차종의 시장규모는 이미 50만대에 이르고 있었으며, 시장 점유율은 작년의 45%에서 60%까지 증가해 22만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의 자가용 보유율은 수직상승하고 있으며, 이미 승용차 판매 총수의 90%를 넘어섰다. 이는 사실상 자가용 시대가 도래했음을 나타낸다. 게다가 유가 상승과 더불어 갈수록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 시 석유소비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게 됐다. 또한 소비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배기량 1.6ℓ 자동차가 연비절감은 물론 엔진과워도 뛰어나 도심운행이나 장거리 주행, 언덕까지도 “자유자재”로 오르내릴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췌 : 2005년 12월 2일 每日經濟新聞)

10) 자동차 과잉생산(汽車產能過剩)

보도내용 : 과잉 생산의 우려

올해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600만대에 못 미쳤지만, 전 업계의 생산능력은 오히려 800만 대로 200만대나 과잉 생산됐다. 게다가 아직도 220만대를 더 생산해 낼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800만대가 더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열리고 있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실무회의에서 마카이(馬凱) 주임도 자동차 업계의 이런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런 우려도 일리가 있다. 발개위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17개의 완성차 생산 공장이 있지만, 연간 생산량이 1만대를 채우지 못하는 기업이 90여 곳이나 있어, 기본적인 수익규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올 10개월까지 자동차 업계 누적 생산량은 동기간 대비 9.18%증가한 461.89대까지 증가했지만, 올해 이윤은 오히려 동기간대비 36.7% 하락했고, 적자기업의 손실액은 86.2%로 더욱 늘어났다. 자동차 업계의 과잉생산의 부정적인 결과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발췌 : 2005년 12월 19일 人民日報)

제5장 : 체육부문 유행어

서두 : “핑샤이”, “딩쥘웨이” 등 체육 스타들의 활약

① 중국 테니스 여자단식의 별 “핑샤이” 선수가 2005년 아시아 여자부 “왕좌”에 올랐다. ② 스누커 신동 “딩쥘웨이”도 현란한 솜씨로 영국 챔피언십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③ 올림픽의 낭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슬로건과 올림픽 마스코트 “푸와”가 선을 보였다. ④ 2012년 올림픽 개최지로 런던이 최종 확정됐다. ⑤ 중국 축구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축구협회의 새로운 책임자로 “셰야룽”이 선정됐다. ⑥ 선전(深圳) 젠리바오(建力寶) 구단의 축구선수 몇 명이 경기출전과 훈련을 거부했는데, 이에 대해 감독 츠상빈(遲尙斌)이 이를 “그라운드의 무법자”라고 지적했다.

체육부문 유행어 : 핑샤이(彭帥), 딩쥘웨이(丁俊暉), 셰야룽(謝亞龍), 푸와(福娃), 츠상빈(遲尙斌), 후카이(胡凱),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同一個世界, 同一個夢想), 그라운드의 무법자(球霸), 런던 올림픽(倫敦申奧), “쑤잉제 사건(孫英傑事件)”.

1) 핑샤이 (彭師)

보도내용 : 핑샤이, 미스키나를 꺾다.

어제 시드니에서 열린 2005년 호주 오픈테니스 대회에서 중국에 첫 낭보가 전해졌다. 핑샤이가 총상금 58만 5천 달러의 메이저 국제 테니스 대회 여자단식 두 번째 시합에서 전년도 우승자이자, 세계 랭킹 3위의 러시아 명장 미스키나를 꺾었다. 그녀는 이로써 중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핑샤이는 대회 4일전 열아홉 살 생일을 맞았다. 이 차세대 주자인 떠오르는 별을 키우기 위해 중국 테니스 협회는 2002년 그녀를 미국으로 보내 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그녀는 서브와 포핸드 공격에 강하며, 스타일은 유럽 선수에 가깝다. 그녀는 2003년 자신의 첫 번째 국제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타이완의 노장 리웨이즈(李慧芝)와 팀을 이루어 미국 여자테니스대회 여자 복식에 단번에 8강에 오르는 쾌거를 기록하며, 중국 선수들 중 그랜드 슬램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녀는 지난 1년 사이에 세계 326위에서 80위로 경천 뛰어들었다.

(발췌 : 2005년 1월 12일 解放日報)

2) 덩쥘웨이 (丁俊暉)

보도내용 : 덩쥘웨이 역사를 다시 쓰다

중국 당구 신동 덩쥘웨이가 베이징시간으로 어제 새벽 요크에서 열린 영국 스누커 월드챔피언십 결승전에서 10대 6으로 전설적인 노장 데이비스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그는 영국 또는 아일랜드인이 독점하던 우승컵을 처음으로 낚아챈 다른 국가 선수로 기록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영국 월드챔피언십 우승컵을 따냄과 동시에 27년간 영국과 아일랜드 선수만이 우승을 하던 역사를 고쳐 썼다. 속사포를 쏘는 속도와 어리지만 노련한 스타일은 영국 전역을 놀라게 했으며, 현장에 있던 BBC방송 해설위원도 “로니 오설리반 선수에 이어 21세기에는 덩쥘웨이의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발췌 : 2005년 12월 20일 新華社)

3) 셰야룽 (謝亞龍)

보도내용 : 셰야룽, 축구 스포츠관리센터 주임으로 선정

신화사 소식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 국가 체육총국이 축구관리센터에서 연 회의에서 국가 체육총국 추이따린(崔大林) 국장보조가 축구관리센터의 새로운 주요 인사를 발표했다.

국가 체육총국은 엔스두어(閻世鐸)를 축구관리센터 주임에서 해임하고, 국가 체육총국 훈련국 국장으로 전임시켰다. 동시에 셰야룽이 축구관리센터 주임 직무를 인계받았다.

엔스두어는 회의에서 당 조직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 말하고, 또한 동

료들의 지난 4년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셰야룽은 우선 당 조직의 신입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주어진 임무를 완성해나가자고 말했다.

올해 49세의 셰야룽은 베이징 체육대학을 졸업한 뒤 교사, 공무원 등을 역임했으며, 베이징 체육대학, 국가체육총국 사무국, 군체사(群體司), 육상경기관리센터, 체육과학연구소, 체육정보센터 등에서 재직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산시(陝西)성 안강(安康)에서 시위원회 부서기를 역임했다.

(발췌 : 2005년 2월 18일 文匯報)

4) 푸와(福娃)

보도내용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 - 푸와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푸와는 2008년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로, 색상과 영감은 올림픽 오륜기와 중국의 광활한 산천과 호수, 중국인들이 가장 아끼는 동물을 형상화한 것이다. 푸와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에게 우정과 평화, 진취적인 정신, 인간과 자연의 조화 등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푸와는 또 물고기, 팬더, 영양, 제비와 올림픽 성화를 형상화한 다섯 가지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베이베이(貝貝)”, “징징(晶晶)”, “환환(歡歡)”, “잉잉(迎迎)” “니니(妮妮)” 등 각자 양증맞은 이름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음절로 된 애칭으로 어린이들에게 호감을 표현해왔다. 또한 앞 글자를 이어 부르면, “베이징은 여러분을 환영 합니다”라는 말이 만들어진다.

푸와는 또 꿈과 중국 국민의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외형과 머리 장식은 바다, 숲, 불, 대지, 하늘과의 연관성을 담고 있으며, 디자인은 중국 전통예술의 표현방식을 응용하였고 중국의 찬란한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오랫동안 중국은 각종 상징물로 복을 기원해왔다. 따라서 이 마스코트들도 각각 번영, 기쁨, 걱정, 건강, 행운이라는 아름다운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앞으로 이 마스코트들은 베이징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 지구 곳곳에 축복을 가져다주고,

전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발췌 : 2005년 11월 12일 新華社)

5) 츠상빈 (遲尚斌)

보도내용 : 쓸쓸한 퇴역의 주인공 츠상빈

선전(深圳) 축구 구단이 제기한 “사직요구”를 거절한 후, 줄곧 “선전 축구의 노장”과 암투를 벌이던 츠상빈(遲尚斌)이 어제 쟈리바오(建力寶) 구단 측에 의해 감독직에서 해임되었다.

츠상빈의 해임과 동시에 떠들썩하던 선전 축구의 “내전”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단체로 감독에게 맞섰던 축구선수들은 예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양명(楊猛) 구단주는 “감독 교체는 대국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츠상빈의 후임자는 선전 축구 전임 단장 귀루이룽(郭瑞龍)이며, 앞으로 그는 선전 구단 코치팀 팀장을 맡게 될 것이다. 그동안 외면당한 셰펑(謝峰), 장권(張軍), 쑤강(孫綱) 등도 새로운 코치팀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츠상빈은 이미 세 차례나 사직서를 제출했었지만, 매번 구단 측으로부터 거절당했었다. 하지만 이번 구단과의 협상과정에서 츠상빈은 “자진사퇴”를 선택하지 않았다. 어제 오후 양명은 츠상빈을 이렇게 평가했다. “츠상빈이 지도력이 탁월하고, 팀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선전 팀은 작년 중국 슈퍼리그에서 우승까지 했었다. 하지만 주광후(朱廣滬)가 국가대표 팀으로 이동하면서, 그 뒤를 이은 츠상빈의 팀 성적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이전 리그전에서는 4연속 무승부 끝에 5연속 패배를 기록한 데다 간신히 두 골을 넣었을 정도이니 말이다. 선수들과의 관계에서도 “네가 있으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마찰이 심했다. 츠상빈은 사직하기 이틀 전까지도 “선전의 축구 노장” 리웨이펑(李瑋峰)과 리이(李毅)선수 등을 비난했다.

(발췌 : 2005년 5월 18일 新民晚報)

6) 후카이(胡凱)

보도내용 : 후카이, 대회 신기록 갱신

중국 칭화(淸華)대학의 후카이(胡凱) 선수가 제23회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다. 후카이는 이틀 전 열린 육상 100미터 결승전에서 10초 30으로 우승을 차지, 세계 대회참가 역사상 최초로 중국에게 남자 100미터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중국 대표단은 대회 중반까지 모두 13개의 금메달을 따내 일본의 뒤를 바짝 뒤쫓았으며, 금메달 수로는 2위였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적인 선수가 참가하지 않아, 국내에서 10초 27을 기록했던 후카이는 가볍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관중들의 열띤 환호에 힘입어 계속 앞서나가던 그는 마침내 10초 30의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발췌 : 2005년 8월 18일 文匯報)

7)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同一個世界, 同一個夢想)

보도내용 : 베이징올림픽 슬로건,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슬로건 발표행사가 26일 저녁 베이징 공인(工人)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 리장춘(李長春)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One World One Dream)”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였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승인을 거쳐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을 제29회 올림픽 슬로건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는 제13회 장애인 올림픽 슬로건이기도 하다.

(발췌 : 2005년 6월 27일 新華社)

8) 그라운드의 무법자 (球霸)

보도내용 : 츠상빈(遲尚斌), “그라운드의 무법자”에 선전포고

해임당한 츠상빈(遲尚斌)은 “가슴에 쌓인 말이 너무 많아, 이 말들을 삭힌 채 다롄(大連)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어제 저녁 츠상빈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선전(深圳) 축구팬들에게 사과와 뜻을 전하고, 동시에 선전 젠리바오(建力寶) 구단의 숨겨진 내막을 폭로하며 선전 축구 구단의 “그라운드의 무법자”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츠상빈은 우선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그는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중국 슈퍼 리그전에서 4연속 무승부 5연속 패배라는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팀을 이끈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감독으로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팀은 물론 선전의 많은 축구팬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줘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선전팀은 두 달여 만에 리그전 우승팀에서 꼴찌로 전락했다. 이에 대해 츠상빈은 “나는 늘 생각합니다. 선전 젠리바오 팀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7명이나 있지만,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연봉 제한”도 선수들의 불만을 산 한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한 선수(리웨이핑을 가리킴)는 나에게 자동차와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선수들의 월급이 적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이전에 츠상빈은 리웨이핑의 연봉이 180만 위안이라고 밝혔다) 사실 선수들도 이 정도에서 분수를 지키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는 선전팀의 저조한 성적을 거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수들은 밤늦게까지 숙소로 돌아오지 않기가 일쑤였고, 일부 노장 선수들은 함께 밤을 새며 새벽 한 두시가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는 것이다.

츠상빈은 또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베트남과의 경기 전에 “선전 축구팬클럽 회장이 코치팀을 찾아왔었다. 하지만 그는 축구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선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러 온 것이었다. 일부 선수들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가조차 내지 않았으면서 말이다. 가령 출발 시간이 되어서야 치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건 기본이고 나중에는 더 가관이었다. 쓰촨관청(四川冠城) 팀과의 경기에서는 코너킥을 찰 때 우리는 못 한다며 용병 선수를 내보내라고 우기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몇몇 선수들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다른 젊은 선수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한 브라질 코치가 그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는데, 시작부터 계속 가까이 모이라고 외쳐댔다고 한다. 나중에 보니 한 노장 선수가 젊은 선수들에게 ‘그렇게 빨리 달려서 뭐할 거야!’라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이제 이 팀에서는 공을 차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 할 판이다.”

“카드놀이도 엄연한 금지사항이며, 아무리 푼돈이라고 해도 역시 도박은 도박이다. 아침에 관리규칙을 공포하면 선수들은 저녁부터 새벽 두시까지 카드놀이를 하곤 했다.”

츠상빈의 말은 선전팀의 내부기강이 흐트러졌다는 것이다. “내가 관리규칙을 발표한 후, 일부 선수들은 장젠(張健)에게 돈은 다 카드에 있으니 월급을 제하라며 구단 측에 알리라고 했다. 다만 누구든 내 돈에 손대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할 정도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어떤 선수는 교체될 때마다 왜 자기를 후보로 못뛰게 하느냐? 이게 바로 나를 물 먹이려는 게 아니냐? 라고 따지곤 했다. 또 어떤 선수는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전을 마치고 구단주 두 분이 격려금을 전하러 왔을 때도, ‘멍청한 늙은이들, 니들이 60만 위안을 구경이나 해봤겠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었다.”

“중국의 축구스타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있는 것만 같다. 이젠 ‘내가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라고 떠드는 것조차도 가소롭다.”

(발췌 : 2005년 5월 19일 新民晚報)

9) 런던 올림픽 (倫敦申奧)

보도내용 : 행운의 주인공 런던, 불타오르는 영국

18개월의 기다림도 모자라,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뜬을 들이던 1초조차도 숨 가빴다. 현지시간으로 7월 6일 12시 49분, 런던은 마침내 싱가포르에서 날아온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 확정”이라는 “낭보”를 들을 수 있었다.

단 네 표 차이로 런던은 행운의 주인공으로 낙찰됐다.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려 왔던 소식이기엔 런던은 여느 때보다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아테네 올림픽 남자 400미터 릴레이 우승자 가드너 선수가 인산인해를 이룬 트라펠가 광장에서 런던 유치성공을 외쳤다.

(발췌 : 2005년 5월 19일 新民晚報)

10) “쑤잉제(孫英傑) 사건”

보도내용 : 극적 반전 이룬 “쑤잉제(孫英傑) 사건”

제10회 전국체전을 발각 뒤집어 놓았던 장거리 육상 선수 쑨잉제(孫英傑)의 “홍분제 복용사건”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현재 헤이룽장(黑龍江)성 우다렌츠(五大連池)시에서 훈련 중인 그녀는 현지 법원에서 극비리에 승소를 거두었고, 결국 “결백”을 입증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제10회 전국체전 기간에 있었던 쑨잉제의 약물복용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극적인 반전

5일간의 법정 심문 끝에 우다렌츠시 법원이 16일 내린 1심 판결결과는 매우 뜻밖이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조작한 사람은 바로 그녀의 감독 왕더셴(王德顯)의 동생인 왕더밍(王德明)이 감독을 맡은 칭하이(青海)성 팀 소속의 위하이장(於海江)이었기 때문이다.

왕더셴의 말에 따르면, 위하이장은 헤이룽장성 우다렌츠시 타이핑(太平)향 난첸(南泉)촌 태생으로, 왕더셴과는 치치하얼(齊齊哈爾)에서 훈련을 하다 알게 되었다. 그 후 왕더셴은 위하이장을 왕더밍에게 자비선수(자비를 내고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로 소개시켜 주었다. 두 팀은 칭하이(青海)에서 함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끼리도 서로 친하게 지냈으며, 위하이장은 이 때 쑨잉제와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은 왕더셴이 어떻게 위하이장을 의심하게 됐을까 하는 것이다. 왕더셴은 법정에서도 이에 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범죄 완강히 부인

즐근 자신이 모함 당했다고 확신했던 쑨잉제는 왕더밍 감독과 함께 계속해서 증거를 찾아다녔다. 또한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하이장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조사결과 위하이장은 10월 16일 직접 쑨잉제가 평소에 마시던 키위 주스 속에 “강력보(일종의 홍분제)”를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쑨잉제는 10월 16일 베이징 국제마라톤 대회와 제10회 전국체전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고, 완주 후 규정대로 진행한 소변검사는 정상이었으며, 외원성 안드로스테론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분제는 33시간이 지난 제10회 전국체전 여자 10,000미터 시합이 끝나고 나서야 발견되었다. 따라서 피고 위하이장이 넣은 “강력보”가 원고 쑨잉제가 처벌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라는 것이다.

피고, 법정에서 범죄시인

피고 위하이장은 법정 심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처음

에는 그녀를 도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쑨잉제는 늘 내 마음의 우상이었고,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다 보니 숭배하는 기분마저 느껴졌죠.”라고 말했다.

“강력보”를 어떻게 손에 넣게 됐는지에 대한 그의 진술은 더욱 어이가 없었다. 그는 이번에 사용한 “강력보”는 베이징 텐안먼 부근의 한 화장실에 걸려있었던 봉지에서 습득한 것이며, 자신은 그것을 보약이라고 생각했고 흥분제인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몇 차례 먹고 난 후 몸에 힘이 솟는 걸 느꼈고, 우상인 쑨잉제를 돕고 싶다는 욕심에 그녀가 마시다 남은 음료수에 넣을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우다렌츠시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쑨잉제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 위하이장은 주요 신문에 원고 쑨잉제에 대해 공개사과 할 것과,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3만 위안과 소송비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위하이장은 원고 쑨잉제에게 직접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언론이 대외적으로 이 사건을 공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신적 손해배상비도 부담할 능력이 없다며 상소할 뜻을 밝혔다.

소송은 이겼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판결 이후, 국가 육상경기관리센터 평슈용(馮樹勇) 부주임은 어제 이 사건에 대해 규정대로 세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올림픽위원회 반 흥분제사건위원회 관계자 자오젠(趙健)은 법원의 조사내용과 판결은 중국 육상협회가 쑨잉제 사건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청문회에서 인정하는 근거와 판결만이 최종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 규정상 운동선수가 전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쑨잉제 자신도 이미 개봉된 음료수를 마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설사 법정판결이 쑨잉제에게 유리할지라도 처벌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쑨잉제, 사건 경위

10월 15일, 쑨잉제는 베이징 국제마라톤대회 및 제10회 전국체전 여자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10월 17일, 쑨잉제는 제10회 전국체전 난징(南京) 여자 10,000미터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10월 21일, 쑨잉제는 10,000미터 완주 후 A병 소변샘플 검사결과에서 안드로스테론 외원성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대회 위원회는 즉각 10,000미터 시합성적을 취소하고, 10회 전국체전 경기 참가자격을 박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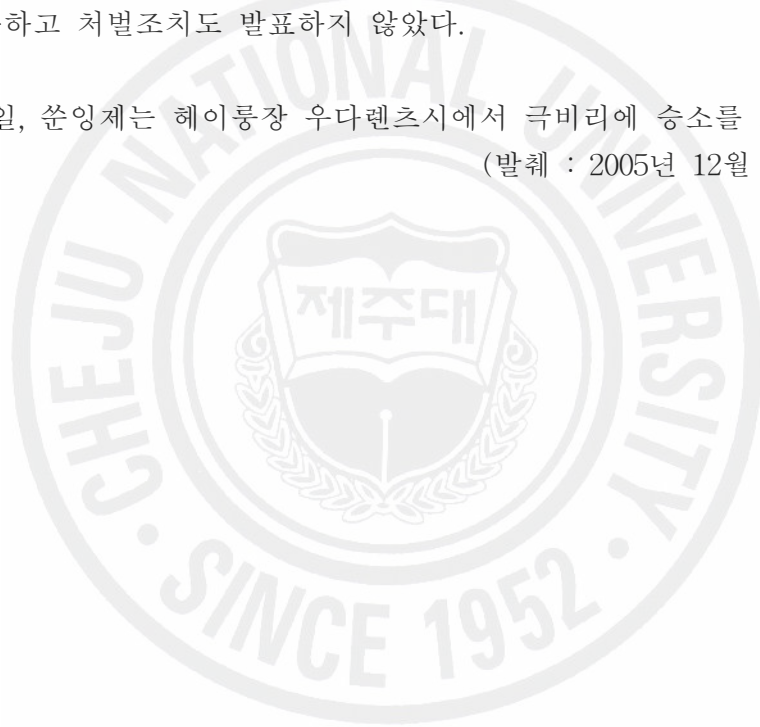
11월 7일, 중국 육상협회는 베이징에서 쑨잉제의 B병 소변검사 결과가 A병 소변검사 결과와 일치하며, 안드로스테론 외원성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11월 11일, 쑨잉제를 대표로 하는 체육협회 대표자가 정식으로 중국 육상협회에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제기했다.

11월 18일, 청문회가 열린 후 회의가 50분 동안이나 진행됐지만, 어떠한 결론도 얻지 못하고 처벌조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12월 17일, 쑨잉제는 헤이룽장 우다롄츠시에서 극비리에 승소를 거두었다.

(발취 : 2005년 12월 19일 文匯報)



논문 초록

“2006 중국 유행어”는 2006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상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중국어 문장의 표현방법과 단어를 익혀보고자 “2006 중국 유행어”를 번역하게 됐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사부문 유행어, 둘째 국제부문 유행어, 셋째, 부동산부문 유행어, 넷째, 자동차부문 유행어, 다섯째, 체육부문 유행어로 나뉘져 있다. 특히 시사부문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자주적 혁신’, ‘신농촌 건설’ 등의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로써 현재 중국 내부의 정책 및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부동산부문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전문 용어들을 익힐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각 분야별로 특정 기사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혹은 낯선 단어들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와 기사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알아야 한다. 만약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모를 경우,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자칫 오역이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축구”등, 각 분야별 전문 용어나 문장을 가장 적절한 한국어로 표현해 내려면, 번역자가 풍부한 상식과 배경지식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번역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따라서 번역을 하는 동안 직역과 의역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다. 가령 “부동산부문”에서 “經濟適用房”이란 단어를 직역해 단지 한자식 표현으로 “경제적용방”이라고 번역했을 경우, 일반 독자들은 “경제적용방”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민용 주택”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이처럼 번역이란 때론 직역을 하고 때론 의역을 하면서 번역자가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어내야만 한다. 이 번역서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을 찾는데 최선을 다했다. 번역자의 올바른 자세는 오역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오역을 피하려면 번역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번역기술을 익히고 훈련을 해야 한다. “2006 중국 유행어”를 직접 번역함으로써 번역 훈련을 쌓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타를 바란다.

